

지도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 때역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무너져가는 가치관을 바로 잡게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신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33편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월 28일 (토) 제 161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미국!

미 언론, 트럼프시대 개막 동시 시행되는 진보정책 수정 폐지 보도

“최악이 아닌 차선”으로 백인 복음주의자 81%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펼친 진보적 정책들을 대폭 수정 또는 폐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20일 열린 취임식 현장에 초청된 정치, 경제, 종교계 인사들만 보아도, 향후 미국사회의 궤적이 어떠한 노선으로 향하게 될 지 알 수 있었다.

먼저 고무적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삭제됐다. LGBT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동성애자를 뜻하는 약자다.

친 동성애자인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으며, 미국 내 동성애 옹호 문화를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독교 정치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김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국회에 진출하고 주지사에 당선된 정치인들 중 가장 반 LGBTQ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치 운동가 중 하나이다. 그는 인디애나 주의 엄격한 반 LGBTQ ‘종교의 자유’ 법안에 서명하기 훨씬 전부터 의회에서 ‘전환 치료’를 지지했고, 그 뒤 칼럼니스트 겸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할 때는 동성결혼이 ‘사회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설을 했으며 동성애를 ‘선택’이라고 불렀다. 그는 게이들의 결혼을 막는 것은 편견이 아니며 강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애를 아동성애와 근친상간에 비교했던 벤 카슨이 인수위원회의 부회장이며, 다른 부회장 뉴트 김리치는 ‘게이 파시즘’이란 말을 쓰며 공격했던 적이 있고, 2014년에는 LGBTQ 인권을 두고 ‘새로운 파시즘’이라고 했다.

이미 합헌화 된 동성결혼을 뒤집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전국결혼수호단체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으며, 트럼프에게 계획을 보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하원에 이미 제출된 수정헌법 1조 보호법안과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성결혼이 2류 결혼처럼 될 수가 있다. 킴 데이비스 같은 공무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주에서 게이 부부를 고객으로 받기를 거부해 발화점이 됐던 제빵사와 플로리스트들은 게이들을 거부할 권리를 연방법으로 보장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면 더욱 보수적이 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연방 공무원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주에서 게이 부부를 고객으로 받기를 거부해 발화점이 됐던 제빵사와 플로리스트들은 게이들을 거부할 권리를 연방법으로 보장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면 더욱 보수적이 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133:1).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 연설 도중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취임 이후 이념과 인종, 계층, 종교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하나님(God)’을 4차례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미국사회에 복음주의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오바마 케어” 손질 명령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3면으로 계속)

지구촌 부(rich) 편중현상 심각하다

허핑턴포스트, 옥스팜 분석 활용 전세계 물질적 불평등 심층 보도

극빈자 구제기관 옥스팜(Oxfam)이 최근 발표한 분석(Just 8 people now have the same wealth as the poorest 3.6 billion)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super rich)가 전 인류 중 가난한 절반과 같은 양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는 옥스팜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치우친 ‘부의 편중화’라는 불편한 진실이 지구촌에서 물질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These 8 Men Have As Much Money As Half The World).

8명이 가난한 18억명과 같은 양의 부 소유

포브스가 뽑은 세계 최대 부자 명단에 오른 이 억만장자들 중 6명은 미국 사업가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 빌 게이츠,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CEO 워렌 버핏, 아마존 설립자이자 CEO 제프 베조스, 오라클 공동설립자 래리 엘리슨, 전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페이스북 설립자이자 CEO 마크 저커버그다. 멕시코의 거물 카를로스 슬림, 자라 등의 소매점 체인을 설립한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가도 나머지 두 명이다. 그들의 순자산(자산에서 빚을 뺀)을 합치면 4,260억 달러에 달한다.

36억 명이 넘는 인류 중 가난한 절반의 이름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 수 없지만, 그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산다.

옥스팜 수치는 숫자뿐만 아니라 알기 힘들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선명히 드러낸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불평등을 추적해 왔다.

불평등이 심해지며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서 부자들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골이 깊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에 찬성하

는 투표 결과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심해지는 불평등을 내버려두면 우리 사회가 갈라질 것이다.” 옥스팜은 보고서에서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인종차별이 우려스러운 정도로 심해지고 있으며,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이 퍼졌다”고 적었다.

2016년, 전 세계 1%에 속하는 부자들이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옥스팜은 지적한다. 포브스 리스트에 오른 억만장자 1,810명(이 중 89%가 남성)이 인류의 부의 70%에 해당하는 6조5천억 달러를 소유한다.

달라 표현하면 부자들은 두툼한 파이 조각을 가져가는 반면, 수십억 명은 파이 절반의 부스러기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옥스팜은 포브스의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와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 정보를 사용해 분석했다. 이 자산 정보에 의하면 인류의 가난한 80%는 아프리카와 인도에 살고 있는 성인이다. 그들은 젊은 편이며, 미혼에 교육수준이 낮을 확률이 높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미국우선주의” 아닌 “성경우선주의” 미국으로!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살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6면
신앙이 직장생활에
안정감 준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1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1st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1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일시: 주후 2017년 5월 16일(화) - 5월 19일(금) (3박 4일)
- 총회장소: THE HOTEL ALYESKA (www.alyeskaresort.com)
1000 berg Avenue | Girdwood, AK 99587 (Tel:1-800-880-3880)
- 숙식비: 총회 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ollar)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	2차(3월 1일)	3차(4월 1일)
2인1실(1인당)	\$ 399	\$ 439	\$ 479
1인1실	\$ 720	\$ 760	\$ 799
부부	\$ 799	\$ 859	\$ 939
원로/공로 목사	2인1실	\$ 199	\$ 239
	(부부)	\$ 599	\$ 639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3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총회 전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체류하실 분들은 미리 총회 준비 위원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APC
* 주소 : Rev. Jae IL Yoo (유재일 목사)
Anchorage Open-Door Presbyterian Church (앵커리지 열린문장로교회)
8220 Briarwood St., Anchorage, AK 99518
907)344-6446, (FAX) 907-344-3182 / kopc@hotmail.com

- 교통안내: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차량을 배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도착공항과 시간, 항공편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리지 공항 ANC South Terminal로 오셔야 픽업이 가능합니다.
- 접수: 첫째 날 (5월 16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 1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기타: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교회: (907) 344-6446, (907) 350-7907
호 텔: 이진우목사 (778) 389-3391
관 광: 최성은목사 (403) 431-2507
총 무: 장현철목사 (778) 899-750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주후 2017년 1월 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제41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진우 목사 서기 문석호 목사

“미국우선주의” 아닌 “성경우선주의” 미국으로!

CT, 트럼프 대통령취임식 기도 맡은 폴라 화이트 목사로 대변되는 번영신앙 득세 경고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드디어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선거 기간 내내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시대의 서막을 “미국의 대학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났다”고 강조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취임식 당일 공개된 팩스뉴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 답변은 절반이 넘는 54%에 이르렀다. 37% 지지율은 취임을 앞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임식 행사장 주변에만 약 30여건의 집회가 있었고, 이틀날인 21일에는 여성단체의 대규모 집회도 미 전역에서 시행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무슬림을 겨냥하고 있는 증오범죄들과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운동들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사회를 다시 통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티투데이는 취임식 기도자로 초대받은 성직자들 중 폴라 화이트(Paula White)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위 ‘트럼프 이니 서클’로 불리우는 사람들만으로 조각되어지고 있는 행정부 구성으로 대변되는 것을 비판했다. 즉 ‘번영 복음’의 대변인격인 폴라 화이트 목사의 전면적인 부상이 마치 이미 부를 이룬 ‘가진 자들만의 잔치’로 가는 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The Story Behind Trump’s Controversial Prayer Partner: What Paula White’s Washington moment implies for the prosperity gospel’s future).

트럼프가 폴라 화이트를 알게 된 것은 많은 팬들이나 추종자들처럼 TV를 통해서다. 그래서 두 사람은 15년 동안 서로를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이제는 바로 취임식 기도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미국사회 종교적 보수 세력들을 안내하는 수석 영적 자문으로 화이트는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마후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공로(?)로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계 인사 6명 중 한 명이라는 당당한 명예를 얻게 됐다. 그만큼 그녀는 2015년 트



는 당당하게(?) 그 반열에 임성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페인은 분석한다.

듀크 대학 교수이자 번영신학 전문가인 케이트 블러(Kate Bowler,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을 썼다)는,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바로 이 순간은 지난 수십 년동안 번영복음운동이 정치적 역할을 다져와 그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제는 새롭게 정치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번영신학 비판의 선두 주자인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 교수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트럼프 취임식과 행정부 구성에 있어서 화이트의 역할이 미국 복음주의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제리 팔웰이나 빌리 그레함이 폴라 화이트를 두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이제는 자식들까지 이어졌다”며, 제리 팔웰 Jr.는 가장 먼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프랭클린 그레함은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비판한

“번영신학이라는 ‘실용주의적 영성’ 이 미국 사회에 복음주의신학 상징으로 더욱더 수용 가능성” 경고

트럼프 타워에서 유명한 텔레비전 셀리스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트럼프를 위한 기도회를 만들었고, 자신의 친한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트럼프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두둔했고,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통한 교제와 종교 관련 자문을 해오고 있다.

CT와의 인터뷰에서, 화이트는 자신을 “중개인”이라 말하며, 트럼프를 위한 소위 복음주의의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종교자문위원회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지혜와 경륜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이트의 전면적인 부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복음주의 리더들은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있다. 그동안 그녀는 번영신앙 즉 질병이나 약 조건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변형의 주장자 중 한 명으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의 진영에서는 취임식 기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임명(?)한 그녀의 영성이 주류사회에 번영신앙을 가속도로 전할 수 있거나 또는 이미 주류사회에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조지 팩스 대학의 오순절-카리스마틱 신학실천센터의 레아 페인(Leah Payne)은 “이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 크레포 달러, 폴라 화이트, T.D. 제이크스처럼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복음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번영신앙이 주류사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이제 화이트가 정치적 명성까지 거머쥐게 돼,

주류에 번영신학의 가르침들이 정상화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텔레비전셀리스트들은 자신들의 TV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오프라나 CNN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단 한번에 지구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취임식 같은 이벤트는 만들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

다. 그러면서 호튼 교수는 “화이트나 오스틴은 번영신학의 이단적 측면들을 충분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경계한다. 그러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독이 가득 찬 가르침들이 이미 미국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번영신학의 득세를 말해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착한 사람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광풍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1864-1943). 그는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흑인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 병약하여 사람 구실하기조차 힘들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땅콩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그는 목화를 재배하면서 피폐된 미국 남부 지역의 토지에 땅콩을 심게 하여 농업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했다면 그는 남부지역을 해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싫어한 사람도 있어도 그를 싫어한

백인은 없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그는 명예와 재물이 보장된 아이오와 주립농과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가난한 흑인들을 위하여 앨라배마의 터스키기 흑인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평생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지냈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이라고 부른 초라한 실험실에서 실험도구 하나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였다. 그의 실험실에는 오직 성경책 한 권만 있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카버 박사가 훌륭한 사람이 된 데에는 그의 신앙과 성실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가 나서 자란 과정을 보면 그의 주변에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그가 어릴 때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무장 폭도들에 의해 어머니 메리와 납치되었을 때 노예제도를 반대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메리를 고향했던 주인 모세스와 수잔 카버 부부는 그들을 애타게 찾아 나갔다. 그들은 메리가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가서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카버를 말 한 필 값을 치르고 데려왔고 어린 카버에게 집안일과 정원손질과 웹스터의 철자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그에게 실을 뽑고 비누를 만들고 들판에서 약초 뿌리를 캐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장래에 농학자가 되는 길을 닦아주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기에 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 세탁업과 조산원을 했던 마리아 왓킨스는 카버를 자기 집에 허드렛일을 하면서 기거하게 해주었다. 마리아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카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으며, 그에게 성장하여 가난한 동족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 주는 꿈을 심어주었다. 누구나 의지할 자 없던 카버의 생애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살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다가 1890년에는 심슨예술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미술교사 버드는 예술뿐만 아니라 식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은 카버를 아이오와주립대학 농과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수석으로 졸업하는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는 영예를 안게 하였다. 카버도 훌륭하였지만 카버가 인생의 길목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의 생애 동안 이런 모든 업적들은 이런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빛을 볼 수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나는 어느 날 카버의 생애에 관한 글들을 읽다가 내 생애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에게도 나를 이끌어준 착한 분들이 있었다. 나를 아껴준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나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준 세 사람을 잊지 못한다. 그중에도 내가 청소년기와 대학생 때 내게 신앙의 길을 깨우쳐준 이들이 말할 수 없이 고맙다. 병약한 가운데서 방황하는 내게 사랑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로 이끌어주었던 중학시절 주일학교 교사, 스스로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흠 사랑을 외치며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의 청소년들의 대부가 되었던 고등학교 때의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갈 때 학비도 내주고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하던 선교지에서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주며 사랑을 베풀었던 청년 때의 목회자... 그들은 모두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했고 또한 섬겼던 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의 내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고 하셨다. 온 세상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돌아섰다. 점점 더 다른 이들에 대해 무심해져 가고 있다. 어느새 교회도 다른 이들에 대해 냉담한 현실이 되었다. 교회가 착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마저 저만 아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다. 막상 나부터 이렇게 인생과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내 다음 세대에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정제 내지 쇠퇴를 면하기 어렵다. 먼저 교회가 착해져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이 착해져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의 조지 워싱턴 카버와 같은 이들을 발굴해 내야 한다. 그것이 순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ET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미국!

(1면에서 계속)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의 (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폐지 때까지 각 행정부는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어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 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정부에 유연성과 권한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뒤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 측은 국민의 세금이 저소득층에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미국 정책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대선 때도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법률 사안으로서 트럼프가 행정명령만으로 뒤집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이날 첫 명령은 공화당이 새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까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들 중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연방 계약자의 고용 차별 금지 등 오바마의 LGBTQ 인권 관련 명령들도 이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발빠르게 오바마 정권이 남긴 진보적 정책들의 전면적인 수정과 폐기 그리고 보수적인 인사들의 행정부 각료 임명과 정책들 수행으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인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조심스런 희망”을 보이고 있다.

지구촌 부(rich) 편중현상 심각하다

(1면에서 계속)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재산이 아주 적은 가능성이 더욱 높다.

가난한 절반 중 아주 소수만이 미국에 산다. 자산 정보가 자산에서 빛을 뻗 순자산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성인들 주택, 자동차, 학자금 등으로 대출이 많다면 서류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퓨전의 펠릭스 새먼 등 경제 관련 기고자들은 이 점을 두고 옥스팜의 보고서를 비판한다. 옥스팜의 정책과 연구 담당자와인 크립크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허핑턴포스트에 말한다. 하지만 그런 부차적일 뿐, 이 보고서의 불편한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크립크는 말

한다.

부채를 아예 무시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6명의 자산을 합쳤을 때 전 세계 하위 50%의 자산과 같아진다고 옥스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경향은 똑같다. 경제적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부자들은 점점 더 빨리 부유해지고 있다. 나머지 인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크립크는 최고 부자 8명의 자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작년 옥스팜 보고서에서는 억만장자 62명의 자산을 합쳐야 인류 하위 50%와 같았다. 올해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크레딧 스위스 가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의 질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옥스팜이 올해와 같이 개선된 정보를 작년에 사용했다면 억만장

자 9명의 자산만 합쳐도 인류의 하위 절반과 같았을 것이라고 크립크는 말한다(9위는 찰스 코크).

작년에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에는 추가 상승의 영향도 있었다. 추가 상승으로 시장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돈이 더욱 많이 돌아갔다. 달러 강세도 기여했다.

경제적 불만의 증가 덕분에 트럼프에겐 정치적 운이 따랐다. 트럼프는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서 324위에 올라 ‘스타 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와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내각을 임명했다. 최근 블룸버그의 추정에 따르면 내각 임명자들의 자산의 합은 약 120억 달러다.

브렉시트도, 트럼프의 정책 제안(감세, 규제완화, 무역협정 재협상)도 경제적 불평등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최근 허프포스트의 조너선 콘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차기 정권의 첫 주요 정책은 수백만 명으로부터 건강보험을 빼앗고,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결국 불평등의 증가는 도덕적 분노와 리얼리티 TV 스타의 당선 이상의 일을 낳는다. 불평등이 빈곤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병의 위험을 높이며, 자살률을 높이고 수명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백인의 사망률과 해로인 중독 증가를 불평등과 연결 짓는 연구도 있다.

“미국우선주의” 아닌 “성경우선주의” 미국으로!

(2면에서 계속)
오순절주의 진영에서 ‘믿음의 말씀(World of Faith)’로 상징되는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는 변영신앙은 보통 “원하는 것을 부르고 그것을 요구하라”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호튼 교수는 바로 이러한 종교적 접근이 바로 “미국인들에게 있는 DNA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인들은 그나마 선한 사람들로 정확한 자료와 비전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현대적 미국인들의 세계관을 호튼 교수는 지적한다(정치매거진 ‘뉴리퍼블릭’에서도 이미 작년 12월 “Donald Trump’s Capitalist

Christianity Has Old Roots: It’s a very American tradition”라는 글을 통해 1848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적 기독교의 흐름이 어떻게 트럼프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World of Faith 리더들이 ‘변영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미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게 됐다”고 미국인들에게 있는 DNA에 부합되게 복음을 교묘하게 변형한 변영신앙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두고, 화이트는 자신이 변영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는 하나님을 산타 크로스와 같다고 믿지 않는다.” 그녀는 그러나 이번 달에 이

미 구설수에 올랐던 ‘씨앗 헌금’ 강조를 했다. 즉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한 달이나 일주일 그리고 하루 수업에서 “씨앗”과 같은 헌금을 해 2017년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유명 TV부흥사들 중에서 2016년 순위로 12위를 기록한 화이트는 이러한 헌금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07년 의회 재정위원회는 화이트를 포함한 ‘변영 신앙’ TV 복음전도자들에게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비록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중단되기는 했지만, 화이트 목사 등의 ‘변영 신앙 전파자’들에 대한 교계의 시선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명성

까지 덧입은 화이트 목사는 자신의 신학적, 성경적 정당성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변영신학의 정당성 논쟁을 뒤로 하고 이번 취임식에 초청된 종교계 인사들을 보면, 이제 4년 동안 미국을 책임질 트럼프주의(Trumpism)의 윤곽을 그려도 그려볼 수 있다.

결론으로, 프린스턴대학교의 케빈 크루즈(Kevin M. Kruse) 역사학 교수의 경고를 들어보자. 크루즈 교수는 “그레엄과 화이트 목사 둘은 기독교 민족주의와 기독교 자본주의 사상을 포용하는 트럼프의 이데올로기를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제 변영신학이라는 “실용주의적 영성(?)”이 복음주의 신학의 상징으로 미국사회에서 더욱 더 수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은진 목사
(라스베가스연합감리교회)

촛불 뒤에 숨겨진 음모와 영적 계엄령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온 이유는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한 국가의 미래도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순수하면서 걱정된 마음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힘껏 외치었다고 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촛고 지루한 촛불 행렬의 뒤에 숨겨진 음모들이 하나, 둘 드러남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걱정도 해본다. 우리의 조국이 급격히 양분되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 대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쪽에서는 촛불을 켜고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오면서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탄핵을 당할 만큼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게이트의 문제들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고 마녀사냥과 같아서 온갖 확인 안 된 정보와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마녀사냥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확인된 사실도 아닌데 몰아가며 질문을 하는데, 때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자신이 준비한 질문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이 마녀사냥이면서 북한의 인민재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칼럼에 말하기도 했다.

둘째는 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특검이나 헌재에 있어서도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관점으로 본다. 이는 것이다. 판사가 사건에 있어,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유죄로서 결정할 후 거기에 짜 맞추기를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촛불의 백만, 이백만 숫자에 영향을 받아 그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므로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는 태극기든 국민들은 우리도 많이 모여서 맞불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염려한다는 명분 아래 양분된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겠다.

셋째, 시민들에게 촛불을 들도록 하는 두 세력이 있음을 일부 보수논객들은 말하고 있다. 하나는 종북과 좌경세력이다. 그렇다. 조직 없이는 단 몇 천 명도 모이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촛불 뒤에서 시민을 선동하고 동원을 꾀하는 그 조직적 음모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촛불의 모임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이겠다. 또 하나는 언론의 거짓과 조작된 보도에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정말 실망하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과장되게 보도되고 거짓으로 꾸며져 방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작된 언론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라 하면서 한탄하는 논객도 있음을 본다.

그래서 이제 보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종북과 좌경세력에 의한 그리고 정치적 복수심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한 건 건지려는 작심한 청문회의 의원들과 그리고 본의 아니게 배신하면서 종북과 좌경세력에 협력한 비박 국회의원들이 있겠다. 또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돈 벌이에 눈이 뒤집힌 언론사 및 일부 언론인들이 진정 국가를 놓다,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 촛불의 배경으로 어둡고 답답한 그림으로 그려진다 하겠다. 그래서 자유 민주국가와 국민의 암적 존재로 그야말로 수술로서 제거되어야 할 저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드러난 부위를 수술로 깨끗이 제거하거나 당당히 맞서 싸워 적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비밀군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 비밀군사는 누구이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 우리 조국은 지금, ‘영적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이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다. 그 어떤 목적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수단이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은 결국 진실 앞에 밝혀지겠고 그 마귀는 패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거짓을 당신이 말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을 중단하고 회개하여 당신부터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도전해올 때 언제든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피를 부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서 저들 가운데 거짓과 죄악이 물러가도록 강력히 기도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거짓의 영을 버리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시국에 있어 조국과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고 영예케 하는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한다.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은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회서신

엔진 같은 지도자(다니엘 6:3-10)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드디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식이 장엄하게 거행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담전 2:1-2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나 교회와 기업의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나 단체의 엔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은 비록 작지만 거대한 차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거대한 바벨론 120도를 다스리는 엔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문화로 가득 찬 바벨론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엔진의 역할을 맡은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영광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에서 내려온 후에 바벨론의 영광은 바사나라로 옮겨 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의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이 그 패역한 나라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13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

며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패역한 세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사무엘 한 사람이 그 땅에 있으므로 그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 인교회와 성도들이 사무엘과 다니엘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뿐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바사나라가 들었을 때에도 또 다시 총리로 세워져 왕과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참으로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탁월한 영성입니다.

다니엘은 첫째, 순결과 충성됨이 뛰어났습니다(단6:3-4).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와 방백들 중에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함”이 원어엔 “탁월한 영적능력을 소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성령에 사로잡혀”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은 하루 세번씩 예루살렘을 위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뛰어났습니다(단6:10).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니엘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늘 목격하였습니다.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곤경에 처해있었던 벨리포지에서 그 마을 농민들은 워싱턴이 이길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위와 식량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 있는 워싱턴의 모습을 그들은 날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지도자를 보는 백성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

니다. 셋째, 다니엘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단6:23). 그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결과 충성됨이 뛰어나고, 그의 경건의 습관이 뛰어나고, 그의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지키시고 마침내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니엘을 더욱 바벨론 땅에서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니엘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니엘처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나라를 다스리는 순결과 충성됨이 뛰어나고,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뛰어나며, 믿음이 뛰어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푸/른/초/장

이규섭 목사
(윈즈한인교회 담임)



한 성도가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 병명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께 아주 사랑하시는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환자의 누이 마리아는 한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로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출 정도로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급히 오십사 부탁하였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마리아 가정이 이처럼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찾아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도 그 이들 동안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에는 한계

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아빠가 아들을 안고 바다로 들어가면 처음엔 재롱떨고 좋아하던 아이가 점점 깊은 곳으로 가서 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니까 온 힘을 다해 아빠를 꼭 잡습니다. 아이는 얇은 물에서만 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진 자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신앙은 죽음이라

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라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 가정이 그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경

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와 좌절뿐입니다. 그런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틀을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는 노골적으로 죽으러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11장에 기록

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장차 있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시더라”(4절).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신앙이 떨어지면 상태라면 어떻게 들리나요? ‘병 주고 약주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 옥도가 영경위를 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서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

현을 가장 정확하게 잘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경험함이 우리의 한계를 부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십자가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마리아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늦게 오신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계를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병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라야 나오너라!’ 다만 생명을 주시기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요12:29).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교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5면으로 계속)

넘어야 할 한계
(요한복음 11장 1-4절)

는 것 아닌가? 예시 당초 병을 주지 않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오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멸정한 사람 병 걸리게 했다가 낫게 해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행복스럽지 않습니다. 오해죠.

우리 오해를 풀어 봅시다. 일단,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질병도 그렇고 죽음도

길 원하십니다. 마치 누에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가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Bethesda University

<OPEN HOUSE>

DATE & PLACE:
Jan 21, 2017 (Sat), 12:00~3:00 PM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INTERSECTION - EUCLID, NEAR I-5)

SPECIAL INCENTIVE:
APPLICATION FEE WAIVED FOR OPEN HOUSE ATTENDEES

BRING FRIENDS AND FAMILY AND JOIN US FOR AN OPEN HOUSE, LEARN ABOUT OUR PROGRAMS AND ENJOY FREE REFRESHMENTS!!!

CONTACT:
(714) 683-1207 / www.buc.edu

APPLICATION FEE WAIVED FOR OPEN HOUSE ATTENDEES

- Learn about Programs and Degrees
- Meet with Professors
- Financial Aid & Scholarship
- Some Degrees Offered Online
- SEVIS I-20 for International Students

* Certificate E.S.L Certificate / Childcare Director & Teacher

Theology <small>Offered Online degree</small>	• BA: Pastoral/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 in Biblical Studies/ M.Div. • D.Min
Music	BA/ M.A. Piano/Organ/Voice/Instrumental/Composition/Jazz Praise Ministry/Contemporary Music/Musical
Early Child. Education	BA/ Certificate Childcare Director/ Teacher
Business	BA: Business Administration MBA
Legal Administration	BA: Business Admin Concentration: Legal Administration
Sports Management	BA: Business Admin, Concentration: Sports Management
Sport Teams	Current Sports • Soccer: Mens & Womens • Basketball: Mens & Womens • Baseball: Mens

*Estimated Tuition: Full time Undergraduate (12 units) \$3012, Full time Graduate (9 units) \$2655

말의 전쟁 - 설전(舌戰)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려 보면 우울증 증세를 넘어서 이젠 질식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좌우의 입장차이로 나누어진 현실이,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될 날이 올 것이라 기다려보지만 과연 그날이 온다할지라도 지금같이 끝장을 볼 것처럼 싸운다면 과연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본다. 목숨 걸고 싸운 이후의 그 뒷감당이란 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마음이 밝지 않다.

둘이 사랑해서 가정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서로의 부족함으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사랑만큼 마음이 깊을 수 있지만,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같이 죽을 것 같이 끝장 볼 듯 행동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밋고 싫어도 아이의 아빠이고 엄마라는 사실 때문이다.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치 이념에 의해 나뉘어지고 갈등할 수 있

를 범하는 것인데 이해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주님에게 그 나머지를 맞추어내라고 요구하니, 온전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각자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을 듣고 말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준의 내용이 아니면 즉시 즉각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더 나아가 목숨 걸고 싸울 듯이 맹렬히 타오르는 불을 만들어 버린다.

사실과 진실
 한국의 많은 방송과 신문들이 지난 경정 다툼, 특별하기도 않은 작은 팩트를 부풀려서 단독보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본다. 또한 이를 인용하는 또 다른 확대해석과 판단이 번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결론의 진실함을 찾아보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잡아서 주장에 주장에 거듭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이러한 조국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절망에 갇히게 만든다. 그런 절망스런 마음이 들 때, 애써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한다. 가령 예를 든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할 때, 내가 아닌 성도들에게 나타난 문제라고 할 때, 목사인 나는 심방을 갈 것이고, 가서는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심방하며 위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가진다.

공동체를 허무는 말의 전쟁을 피하는 길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불협화음, 갈등과 분쟁의 중요한 자리에 쓰여지는 사단의 도구가 '세치 혀-말(言)' 그리고 확장된 말로서의 언론은 부인할 수 없

할 때 그것을 '행동'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열매를 달아보신다 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내용 가운데 행동만 달아보심이 아니다.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이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흘러가서 열매를 맺었다면 나의 입술의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이다.

5.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도록 노력하라. 말이 급한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말이 급한 대화와 공동체를 어려움에 몰아간다.

6.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며'라고 기도하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의 왕성한 번식력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서 자가 번식이 그치지도록 아파도 상처가 안될 만큼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창세기에 관한 신간을 보니 창세기 9장 노아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사건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노아가 취하였을 때 성추행 혹은 동성애를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LA에서 Mr. Lee

A: 이 본문은 아버지날에 부모 공경의 예로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바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권위 있는 주경신학자들의 주석을 참고하고 대조하여 무리 없이 전통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성경해석을 무시하고 너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면 평신도들에게는 새로운 접근이라 새롭게 들릴지 모르나 오히려 성도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소경된 인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의인 노아가 홍수 후에 영적으로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포도농사를 하여 '술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라고 창세가 9장 21절은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부모공경' 으로 해석해야

해 한국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의하면 '함의 잘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점과 성문제에 대해 염치(부끄러움)를 가지지 않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실수로 그 자손들에게 저주를 끼쳤다. 함의 자손에 대한 저주선언은 하나의 예언이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둘째 아들 함이 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벳은 옷을 취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23절). 셋째 아벳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시켰고 또한 성문제에 대해 염치 있게 처신했다고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22절의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에 대한 이상근 박사의 주석을 보면 1)이 본 것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변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설이 있고(24절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에 비추어 어떤 변태적 성적행위가 있었다...Hofmann,Gunkel) 2)그것을 반대하고 단순히 보았다는 설이 있다(Skinner, Lange, Ryrie) 그러나 후자가 일반적인 견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의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성경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술에 취해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눈으로 보지 말고 옷으로 덮어주어야 했으나 함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인 노아도 홍수 후에 영적으로 방심하자 무절제와 방종으로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 취했을 때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노아에게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를 했기에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 무리한 해석임으로 전통적인 교회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도구 '세치 혀-말(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한계

어도, 신불신을 막론하고 건드릴 수 없는 인간자체의 격으로 말미암는 존엄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싸워도 국가의 존재 자체의 존엄에 대한 문제라면 그 유익을 다시 따져보는 위기가운데 빛나는 공동체 성이 있을 것인데, 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 모 국회의원의 대통령의 사진을 누드화에 패러디하고, 이에 대해 그 국회의원의 부인과 자녀들을 누드 그림에 다시 덧붙이고, 이로 인해 신문과 방송의 허들이 대서특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면 정말 저질스런 정치의 수준과 감정적인 영겨붙음의 화풀이 앞에 그만 냈을 잃게 만든다.

부지중 훈련교육 -오해와 갈등
 어쩔 수 없는 갈등관계에 놓인 공동체라 하여도 여기서 망하고 죽을 것처럼 끝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혀의 전쟁, 설전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언론 중에 한편에 속하게 되어 있다. 계속 훈련되고 교육되어 진다. 그래서 방송과 신문의 말들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점점 더 자신의 논리에 무장에 무장을 거듭하면서 이젠 그 어떤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저항할 나뉠의 무기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다.

복음서를 읽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당시의 고위직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변증을 이어가신다.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저들의 옳무와 합정을 피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책망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해가 무엇인가? 이해가 오류

특별히 제목자체가 너무나 선정적이고 주목하게 만든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과의 일치성이 거의 10%도 되지 않음을 본다. 그렇게 함참한 참 뜯어 먹은 후에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 밝혀져도, 자신들의 기사가 오보였고 잘못된 결론이었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사과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본다.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 선진국 문명사회를 살고 있다하여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아주 고급스런 이기적 존재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인간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기에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간됨이란 것이 무엇인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인정, 사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실존된 채, 진영의 논리로 무장한 세력들은 지금도 혀의 전쟁 설전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남의 일-싸움구경

어떤 이들은 한류 드라마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게 작금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총칼 없는 싸움구경이라는 식으로 농담 삼아 말한다. 그러나 이 싸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의 게임놀이 같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뿐인 조국에 대한 일기에 참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 조국에서 살아가면서 직접 현실에 접하고 있는 자인들 가운데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자기 기준에 의해 일회일비하며 옹동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실의 숙명론에서 이젠 체념하여 무감각을 향해 가는 자신을 한탄하는 것을 듣게 된다.

멀리 태평양 건너 직접적인 일들에서는 비록 떠나있으나 타국에서

다. 말로서 찌르고 찢리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 없는 논쟁과 정죄와 판단의 말들 속에서 공동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것이다. 말 혹은 오염된 언론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쟁의 분명한 손해는 결국 구성원에게 돌아온다.

반대로 언어가 분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언론 또한 공명정대함을 다할 때에 공동체는 건강함을 통해 탄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론의 문제도 사람들의 행위와 말로 인해 발생한다 할 때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언어에 대해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복된 입술은 자신과 공동체를 구한다. 어려운 때에 모세처럼 기도의 언어를 갖고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음으로 자신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살리는 귀한 역사를 소원하라
2. 말은 씨가 된다. 말은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말은 신앙의 표현이다. 지도층이 부정적인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소망의 언어·공정의 언어·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
3. 타인의 단점을 잘 찾아 말하는 것이 정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찾는 것을 정의, 혹은 깊은 영성이나 통찰력으로 오해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바로 앞에서는 동의를 하고, 참 똑똑한 생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돌아서면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피해야 할 사람으로 피하게 된다.
4. 언어가 머리속에 갇혀 있을 때 '생각'이라고 한다.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때 '말'이라고 하며, 말을 구체적인 동작을 통해 열매로 표현

이 사건을 통해 '죽음'에 갇힌 마리아 가정의 믿음의 한계를 부수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일 해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디다. 그분의 능력을 있는 병을 고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디다. 이것이 마리아의 영적 한계였다면, 주님은 이 영적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모습으로든 극복하지 못했던 영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 교제가 있습니다.

ksl0191@gmail.com

동역하실 사역자를 찾습니다 E.M Pastor Wanted

We are seeking candidates to fill part-time or full-time position to serve in our youth ministry.
 We welcome all applicants who have God's calling, have a gift in preaching, teaching, organizing & relationship building.
 Must be fluent English and some Korean.

Contact: Kwanghee Rhee, Pastor

(408)267-2345, (408)500-9512

Send Resume to:

E-mail: kwangheerhee@hotmail.com
past.andrew@gmail.com

실리콘밸리장로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이광희 목사 / Andrew Lee, Pastor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Tel.(408)267-2345 / www.svkpc.org

기사제보와
 분서선교
 후원금을
 발송합니다.

45개국어
 100개종교
 100개언어
 다언어
 다종교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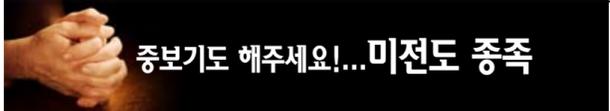
<4면에서 계속>

본문을 다시 검토해봅시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가서 연락하는데 하루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했고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하루가 또 걸렸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부름꾼이 베다니를 떠난 직후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 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고 있을 시점에 이미 나사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심부름꾼이 베다니에 돌아왔을 때도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미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혹은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던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했

다고 가정해 봅시다. 돌아온 심부름꾼에게 "예수님은 안 오시느냐?"(어떤 기대에 찬 말이 아니라 힘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으니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오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만 하시던데요" "뭐? 죽을병이 아니라고? 벌써 죽어 장사지내 버렸는데..." 이미 장례식까지 치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게서? 무심하신 분!' 하며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리 반가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갇혀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알고 계셨습니다(14절). 그러나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후난(HUNANESE, 한족)



4천2백만 이상의 후난 한족은 중국내 민족 중 가장 큰 한족 다음으로 큰 집단이다. 그들은 주로 모택

동(Mao Ze-dong)의 고향인 후난 지방에 거주하는 이곳은 3월 공산주의 항쟁의 주 무대이기도 했다. 또한 광저우 지방과 타이완에도 상당수의 후난 한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후난의 주요 방언인 치양(Xiang)어를 사용한다.

어지고 있다.

삶의 모습

중국인들은 오랜 역사동안 여러 정치적 격변과 불화를 겪어왔다.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하여 나라를 단 일화 했을 때 중국 전역에서는 찬동의 불결이 일어났다. 중국인으로서 또한 공산주의 환경 아래에 살면서, 후난 한족은 오직 한명의 자녀만을 가질 수 있는 중국법에 복종해야 한다. 단 시골 농부의 첫째가 여아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산아 제한법은 한족 사이에서 낙태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런 법률이 꼭 고통을 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여러 법률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1960년 급작스런 인구 증가로 생겨난 대량 기아사태는 약 3천5백만 중국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었다.

후난 한족은 지방 수도 중 가장 대표적인 '장샤(Changsha)'에 대다수가 거주한다. 이는 현대 도시의 중심이고 산업, 교육, 고속 발달, 부의 중심지다. 정부가 그곳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자유가 허락됐고 이 자유가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후난 지방의 날씨는 열대 우림 지역으로 4월에서 6월까지의 폭우가 쏟아진다. 여름은 건조하고 온도가 화씨 80도까지 올라간다. 겨울은 짧고 산악 지역만 낮은 온도를 보인다. 산과 언덕은 다른 지방 사람들이 찾은 관광지다. 양쯔강은 가장 중요한 강이고 지역의 접경을 이룬다.

산악과 언덕지대에는 주로 농촌 생활을 하는 후난 한족들이 쌀, 밀, 차, 다른 과실과 야채들을 재배할

만한 비옥한 계곡을 찾아다닌다. 후난 한족들 가운데 농사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점차 소비중심국가로 변해가면서 경공업과 중공업도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난 한족중 적어도 75%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농경을 중심으로 한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의 기회를 쫓는 젊은 세대들의 변화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모택동의 의복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구세대(舊世代)와 달리 서양의 의복 스타일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는 서양의 사고방식에도 개방적이다. 공산주의 경제방식에 환멸을 느낀 젊은 층은 현재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있다. 1989년 여름에 있었던 학생민주주의운동으로 인해 후난의 수도 '장

샤(Changsha)'에는 대규모로 학생 동요가 일어났다.

신앙

후난 한족은 공산주의자들이지만 여전히 중국문화 속에 뿌리 깊은 유교사상의 잔재가 있다. 또한 불교, 도교, 이슬람, 기타 다른 민속종교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후난 한족의 영적인 필요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성장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다. 사실상 수천만 후난 한족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통해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며 복음에 더욱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란 모독” 누명에 “두렵지 않다” 담대히 고백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사(Isa-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지사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사이다 같은 신앙고백이었다. 2분 40초짜리 동영상은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일명 아후드)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향해 연설했다. 영상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페이스북에 공유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명을 받고 있다.

아후드 주지사가 자신의 신앙을 밝힌 이유가 있다. 최근 그에게 닥친 송사 문제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슬람 경건인 코란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판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란을 모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유세에서 코란 구절을 인용하며 연설했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무슬림이 아닌 아후드 주지사가 무슬림 경전을 인용한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극단적 보수 무슬림들이 동조하면서 아후드 주지사를 비난하는 시위에 나섰고 결국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보수적 무슬림 중엔 이슬람 국가에선 비무슬림이 고위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슬림이 주류인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자유를 다루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후드는 2014년 주지사가 됐다. 화교 출신인 그는 기독교인으로선 처음으로 주지사에 올랐다. 미국에서 무슬림 흑인이 뉴욕시장인 된 것과 같은 일이었다. 아후드 주지사는 자카르타의 방만한 관료조직을 개혁하며 부패 청산에 나섰고 최근엔 일여 예산으로 서민 복지 확대와 지하철·도로 홍수예방 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하면서 대중의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지지율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파들의 저항도 커지면서 ‘아후드 포비아’(아후드 공포증)도 확산됐다. 아후드 주지사의 법정 공방은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역대 가장 많은 교회지도자 참석

도널드 트럼프(71)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말씀의 향연’이 펼쳐졌다. 식전 예배부터 취임식 본 행사, 국가기도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권면했다. 미국 교계 안팎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왔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시133:1).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지난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 연설 도중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며 국민 통합을 촉구했다. 취임 이후 이념과 인종, 계층, 종교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하나님(God)’을 4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 때보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취임식 본 행사 때 기도회 성경봉독, 축도 등을 맡은 6명의 성직자 중 개신교 목회자는 4명이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대표)

목사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제시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메시지다. 앞서 그는 디모데전서 2장 1-6절을 낭독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잠언 21:1).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한 여성 지도자 폴라 화이트 목사는 잠언 구절을 통해 ‘마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취임식 이틀날인 21일 오전 워싱턴DC 국립 대성당에서 진행된 국가기도회. 다양한 종파 지도자들이 자리를 채운 이 행사에서도 트럼프 복음주의자문위원회 소속 목회자들이 1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예수님 세례터에 세워진 교회, 반세기 만에 개방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곳에 세워진 기념 교회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카스르알야후드(Qasr Al-Yahud) 인근에는 오래 전 기념 교회가 세워졌으나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었다. 지뢰 등 위험물이 매설돼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험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교회가 개방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세례 터는 주요 성지순례 코스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하며 예수에게 세례 주는 것을 사양했다. 하지만 예수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뒤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마3:13-17)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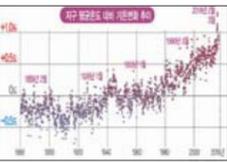
카스르알야후드는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성이라는 뜻이다. 요르단에서는 알마그타스(Al-Maghtas)로도 불린다. 기념 교회는 예수와 요한이 만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지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1967년 이 지역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뒤 교회 주변에 지뢰와 부비트랩 등이 매설됐고 출입도 금지됐다.

양국은 94년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뢰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이클 헤이만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은 “전쟁 중 설치된 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넓은 지역이어서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반세기 이상 교회가 버려지면서 이 교회는 ‘유령 교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의 자선단체 헤일로트러스트가 지뢰 제거에 나서기로 하면서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게 됐다.

이 단체는 위험물을 제거하기위한 4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 중이다. 지뢰가 제거되면 매년 약 50만 명이 예수가 세례를 받은 강 바로 옆에 세워진 이 교회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순례객들은 근처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고 가까운 다른 교회를 방문해왔다.

2016년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

2016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지구 온도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세계기상기구(WMO)와 미국 양대 과학기구인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는 1880년 기상관측을 실시한 이래로 최고 수치를 찍었다. NOAA에 따르면 평균온도는 14.83도로 20세기 평균치 13.88도보다 0.95도 상승했다. WMO도 지난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과 비교해서 1.1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온도 상승 제한폭 1.5에 근접한 수치다.

지구온난화 정도를 가장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지역은 북극이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는 사이 북극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했다. 페테리 탈알라 WMO 사무총장은 “북극 온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빙하가 녹으면 온도뿐 아니라 날씨, 해양 생태계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환경오염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기후학자인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인간 활동이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사 개빈 슈미트 우주연구소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라면서 “엘니뇨현상(적도 해수온난화 현상)은 10%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바마의 굿바이 기자회견...트럼프 향해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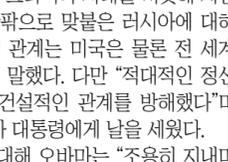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국의 핵심 가치(core values)가 위협받으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1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겠지만 핵심가치가 위기에 처하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차별’ ‘투표권 제한’ 등을 침체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실상 미국인 청년을 추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거듭 밝힌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난 오바마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의 비판을 ‘가짜 뉴스’로 비하한 트럼프와는 다른 태도를 드러냈다. 오바마는 “백악관에 상주한 기자 여러분 덕분에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미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바마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지난 대선 개입 의혹까지 안팎으로 맞붙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대적인 정신(adversarial spirit)이 건설적인 관계를 방해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백악관 이후의 삶에 대해 오바마는 “조용히 지나며 글을 쓰고 두 딸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일단은 시카고에 들러실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 국민을 믿는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옳은 일에 충실하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관철을 것”이라고 작별인사를 건넨 오바마는 기자들에게 “행운을 빈다(Good Luck)”며 브리핑룸을 나섰다.

영국성공회, 종교개혁 당시 폭력 500년 만에 사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의 분열과 종교개혁 과정에서 벗어난 과도한 폭력에 대해 참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공회 최고규 성직자인 저스틴 웹비 캔터베리 대주교와 존 센터리우 대주교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주간에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신교도(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의 영구적인 분열을 초래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국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 등은 성공회가 종교개혁과 관련해 참회 성명을 발표한 것은 교회 창설 후 50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명은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단합에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했으며 이는 예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으로 불신과 경멸의 유산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참회가 다른 교회에 손을 내밀고 그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으로 연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00년이나 뒤늦게 발표된 성공회의 사과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가톨릭과 개신교 양대 교회가 과거의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징후로 보인다고 BBC는 평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캔터베리 대주교가 양 교회 간 정상회담 50주년을 맞아 로마에서 공동미사를 주재한 바 있다.

1517년 10월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종교개혁과 이에 따른 기독교의 분열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 간의 유혈 폭력으로 이어졌다. 성명은 따라서 성공회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영국 내 과도한 폭력에 대해 사죄했다.

영국은 튜더 왕조의 헨리 8세가 로마가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유럽대륙에서 일고 있던 종교개혁을 틈타 영국 국교인 성공회를 출범시켰다. 종교개혁의 이유보다 왕조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기까지 영국 내 가톨릭 교도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이 벌어졌고 메리 여왕 시절에는 반대로 비(非)가톨릭 교도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왕 시절에는 영국 내 예술 및 조각품 가운데 90%가 파괴되는 지금의 이슬람국가(IS)를 방불케 하는 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성명은 이 과정에서 영국 왕실의 무자비한 가톨릭교도 처형을 정당화, 합법화한 성공회의 연루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공회의 사과성명은 종교개혁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성공회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고 BBC는 지적했다. 영국 내 학교 교과과정에는 성공회 탄생에 따른 엄청난 폭력 역사가 다루지지 않고 있어 종교개혁이 일반인의 생활에 안겨준 트라우마의 영향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중국정부 ‘기독교 길들이기’ 최대 이슈

인터넷기독교매체인 차이나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발표한 ‘2016 중국교회 10대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오르내린 교계의 최대이슈는 기독교의 중국화였다. 중국정부가 기독교 관리·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다. 2012년 3월 처음 등장했는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독교와 현지 지교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기독교의 중국화는 이는 중국정부가 대외정대 종교문화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등 학술 단체들과 함께 한 회의 등에서 이뤄졌는데, 2015-2016년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기독교의 중국화는 학문적 토론과 서적 출판, 예배당 건축양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정부에 순응하는 기독교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기독교 교세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교묘한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2014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중국정부가 승인한 교회의 등록 개신교인만 공식적으로 40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미국 퍼듀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가톨릭도 포함) 인구는 1950-2010년 사이 연평균 7%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쯤엔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인 전망도 나온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도·농 교회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도시 교회가 부쩍 늘어난 것. 반면 농촌과 농촌교회는 공동화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학생이나 목회자를 또한 농촌지역 사역을 꺼리면서 교회 지도자 부족 현상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반면 급속도로 이뤄지는 중국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기독교 역할 논의도 이슈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 파괴,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중국사회에 어떤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19. 이경직

이경직은 1876년 서울 안국동에 서 전주 이씨 효령대군 16대손으로 태어났다. 그는 18세에 배재학당에 입학한다. 개화기의 시류를

였던 서울 동대문감리교회의 제6대 담임교역자로서도 섬겼다. 동대문감리교회는 1887년 미국 북감리교 여자 의료 선교사였던 메



카후쿠 교회, 1908년

배실을 짓고 그녀를 기념하여 불드윈 채플이라고도 불렀다. 이 채플에서 이경직이 목회를 한 것이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 8월 순직했을 때 그의 장례예배에 참석한 이경직이 대표기도를 담당하였다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하와이

1904년 5월 6일 29세의 이경직은 20세의 그의 부인 이메립 그리고 두 살 된 아들과 함께 미주 한인들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 새로운

제 1회 감리교 연회는 이경직을 카우아이 섬의 엘레엘레와 플로아로 파송했다. 1904년 말 하와이 3개 섬에 14개 교회와 400교회가 있었는데 그가 맡은 플로아는 16명의 교인이 출석했다. 엘레엘레는 1905년 현재 등록교인이 51명이었고 평균 출석수는 50명이었다.

이경직이 1907년에는 카우아이 섬의 마카벨리와 케쿠아로 파송되었다. 1904년 말 현재 마카벨리에는 22명의 교인이 있었고, 케쿠아에는 18명의 교인이 있었고, 1905년에는 마카벨리에는 등록교인이 38명이었는데 평균 출석은 60명이었고, 케쿠아에는 등록교인이 10명이었는데 반해 평균 출석수는 45

현순, 김영식, 민찬호, 윤병구와 함께 공부했다. 1910년 이경직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민찬호, 홍치범, 김영식, 김유순도 함께 목사안수를 받았다.

서울

1910년 이경직은 귀국한다. 이듬해 그는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입학한 그 해 12월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다. 총 41명이 졸업하였는데 이경직 외에도 하와이를 다녀온 자로는 현 순과 이지성도 있었다.

이경직은 협성신학교 재학 중인 1910년 서울 종로교회 교역자로 부임했다. 본 교회는 1890년 헨리 G. 아펜젤러 선교사가 창립했는데 이경직이 섬기던 때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E.M. 케이블 목사의 지도를 받았다. 이경직은 1913년까지 3년간 봉직하면서 교회사역 이외에도 종로 여자소학교, 종로교회 유치원 그리고 중앙보육학원 등 3개 교육기관을 운영했다. 종로여자소학교는 이화학당의 분교였고, 종로교회 유치원은 1901년에 설립했으며,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이었던 중앙보육학원은 중앙대학교의 전신이다.

1911년 7월 경성 일본인 기독교 청년회는 한국청년회 각 임원과 고명한 목사 등을 일본 시찰차로 청하였다. 이경직도 미미회파의 9명중 한 명으로 장로교과 6명 청년

YMCA의 간부로 활동한다. 그 해 5월 이경직은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한 세계감리교 총회의 한국감리교 평신도 대표로 이승만을 선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승만은 길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망명의 길을 택했다. 그의 미국행은 미주 내 민족운동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이경직은 1913년 6월에는 서강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 해 그는 미국 북감리교 조선연회 한국인 서기로도 임명받았다. 그는 1914년에는 인천 인근 부평 북교회와 부평 남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했고, 1915년엔 서울 북창동교회 담임목사를 지냈다.

이경직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의사로 활동했다. 이경직 한의원 원장이었던 그의 전문분야는 폐결핵, 백일해, 맹장염, 늑막염 그리고 축농증 등이었다.

만주

이경직은 1916년 일제의 탄압과 압력으로 미국 북감리교 조선 연회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목회 사역을 중단하였다. 이듬해 그는 만주 용정으로 이주해 의료 선교를 감당한다. 그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한인 이주민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동족애를 몸소 실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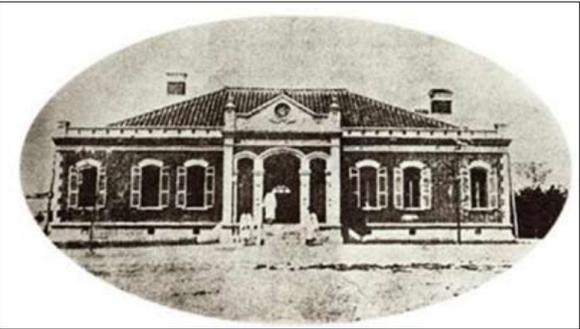
이경직은 만주 용정의 자택에서 용정감리교회를 개척했다. 램부스 기념교회로 불리는 본 교회는 만주 지역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할 만큼 발전했다. 1925년부터 1년간 이경직은 시베리아 선교부 산하 북간도 자립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한 복음 선교를 감당하지는 않았다. 이경직의 부인 이메립(마리아)은 만주에 거주하는 동안 전도부인으로 한인 이주민을 알뜰하게 섬겼다.

다시 서울

이후 이경직과 그의 가족은 함경도 청진으로 이주했다. 10여 년간 만주 용정과 함경도 청진에서 보낸 이경직은 가족과 함께 서울에 다시 온다. 그는 다시 종로교회를 섬기게 된다. 종로 교회는 1930년에 중앙교회로 개칭되었고, 1975년에 인사동으로 이전하였으며, 1983년 하나로빌딩 건물을 신축하고, 하나로 중앙교회로 변신하여 지금에 이른다.

이경직은 1965년에 향년 89세로 소천했다. 그의 아호 석담(石潭)처럼 돌 사이에 흐르는 맑은 물이 되어 소용돌이치는 일제의 거친 역사 속에 복음으로 희망을 나누었다.

damien,sohn@gmail.com



배재학당

쫓아 막내아들만큼은 신식 교육을 시키려는 그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다.

배재학당은 1885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G. 아펜젤러 선교사 등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학교였다. 1887년 선교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7명이 통역관으로 임용되었으니 시작이 좋았다. '배재학당'은 고종이 1887년에 하사한 학교이름으로 '유용한 인재를 양육하는 집'이란 의미였는데 1891년 아펜젤러는 배재학당보다는 배재대학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단순한 영어학교가 아닌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실제 배재학당에서 받은 학점이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직은 배재대학을 꿈꾸는 아펜젤러의 배재학당에서 이승만과 주시경 등과 함께 영어는 물론이고 신학문과 성경을 배운다.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이경직은 정동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1887년 이후 배재학당이 신학교육을 실시했고 현직인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알게 된다. 그 후 그가 세례를 받고 등록한 교회

효령대군 16대손, 배재학당서 신학문과 성경 배워, 동대문감리교회 목회 1904년 하와이로...귀국후 종로교회서 사역, 만주에서 10년 사역후 귀국



이경직 목사



이메레 사모

타 하워드가 동대문 부인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진료소 안에 기도처도 설립하였는데, 미국 북감리교 의료 선교사 윌리엄 B. 스크랜튼이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루이사 C. 로스와 일러 선교사와 이경숙이 담당하면서 동대문감리교회가 된다. 1892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 총무인 L.B. 불드윈 부인의 기부금으로 새 예

방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 해 11월 이경직과 그의 가정은 바이파후 교회에 등록했다.

이경직은 6년간 한인 노동 이주민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1905년 하와이 감리교 미션이 설립되면서 조합교회와 감리교는 협약을 통해 감리교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전도하기로 결의한다. 1905년 12월의

명이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1907년에는 등록교인과 출석수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경직이 1908년에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파송이 되지 않았다가, 1909년에 다시 파송된다. 그는 카우아이 섬의 케알리아와 킬라우이아, 리후에 그리고 하나마울루에 파송되었다. 이들 중 1904년 말에 있었던 교회는 12명의 리후에, 17명의 하나마울루 등의 교회였다.

1910년에 이경직은 오아후 섬의 와이알루아, 모쿠레이, 카후쿠 그리고 라이아로 파송되었다. 이중 1904년 말에 있었던 교회로는 92명의 와이알루아, 37명의 카후쿠 등 두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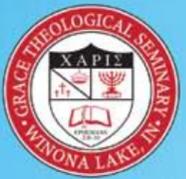
이경직은 다른 대부분의 한인 전도사와 같이 지방회 목사 교육반에 적을 두고 1년급으로 홍치범,



용정감리교회

회 5명 등 총 19명과 함께 동행했다.

황성기독교청년회 YMCA는 1903년에 창립되었는데 창립 이후 1915년까지 종로교회 안에 있었다. 종로교회의 이경직은 1912년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성경도 신앙 (24) 청교도들의 예배 (13)

5)공예배에 더 많은 영적 유익이 있다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이든 바른 공예배 시간에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 공예배 시간에는 영적 생명과 영적인 빛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영적인 힘과 성숙함, 영적인 위로와 신선함도 더 많이 받는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디서 위로와 영혼의 영양분을 받으며, 어디서 필요한 양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신부에게 공예배라고 답하실 것이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

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13절).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지식과 연합이 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꾀술과 간사한 유혹을 이기는 힘과 견고함이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15절). 여기에 모든 일에 관한 성장과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것들이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슥8:20,21) 이런 일은 다윗에게 자주 있었던 일이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시34:3).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찌어다 여호와께 돌릴찌어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찌어다”(시96:7,8).



이운석 목사
(NY 부르크린 제일교회)

여호와와 기업에 받는 가장 좋은 길은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공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트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예배는 배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비해주는 안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저주스러운 배교의 길로 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복음 진리와 성경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방탕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자들 중에는 무엇보다 공예배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자들이 많다. 믿음이 파선되고 선한 양심을 버린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공예배를 내팽개치는 자들이다. 공격 모임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공예배야말로 배교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가르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리 저리 밀려 요동하지 않아 한다(엡4:14). 공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신속하게 이탈하

영적 유익 많은 공예배 떠나면 우상숭배의 길로 가기 쉬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공예배는 하나님나라와 가장 가까워

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아1:7,8). 여기 목자들은 주님께서 공예배를 집전하도록 세우신 목사들과 교사들을 가리킨다. 교회는 그들에게서 먹을 양식과 힘이 무엇인지를 지도받는다. 그들을 통해 영적인 위로와 양식을 얻는다. 목자들은 대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 떼들을 목양하시듯이 양 무리들을 돌보아야 할 직무를 맡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목적을 낱게 하는 근원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이다. 예배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공적인 예전을 집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12절). 교회에서 일을 위함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그 수단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만 한다면 그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개인 경건 시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집요하게 짓누르고 있는 시험 거리들과 싸워야 했다. “내가 어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시73:16,17)고 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을 때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이런 의혹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사적인 예배시간보다 공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인 예배보다 공예배를 더욱 선호해야 한다.
6)공예배는 사적 예배보다 성도들을 더 세워준다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유익을 얻는다. 그러나 공예배 시간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준다. 선행이 가장 잘 퍼지고 가장 잘 소통된다. 모범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일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면 서로를 깨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죽은 모습, 냉랭함, 뜨뜻미지근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더욱 세우는 공예배를 사적 예배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
기타락을 방지하는데 공예배가 사적 예배보다 더 나은 안전한 방식이다
공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배교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다윗은 망명생활을 할 때 사적인 예배시간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러나 그는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이것이 사무엘상 26장 19절에 나타나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데 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12면으로 계속)

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제정해주신 수단이며, 교회로 하여금 악한 자들과 동행하거나 외식하거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주신 것이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식을 취해야 한다(아1:8). 그렇지 않으면 늑대와 여우들의 밤이 되고, 우리를 기만하여 넘어뜨리려는 자들의 손에 떨어질 뿐이다. 공예배는 우리를 배교의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8)공예배 시간에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
주님은 개인적인 경건시간보다 공예배 시간에 더 크게 역사하신다. 지구상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공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공예배가 매 주 자주 있고 주어지는 영적인 은총들이 갖다 보니 흔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공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은총은 사적인 예배시간에 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때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은 바른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라는 글을 내 책상 앞에 붙여 놓았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분주병에 걸려 매일 매시간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분주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의 질서가 엉망이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엔 늘 불행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요즘 사람들은 3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며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상품들은 더 첨단화 되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조금의 기다림도 조조해하며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컴퓨터가 느리다고 그 컴퓨터를 박살내 버렸다는데...
그렇게 교회에서도 철야기도가 심야기도로 바뀌었고 모든 모임을 가급적 주일로 몰아서 끝내고, 12주짜리 성경공부는 아예 모임이 불가능해 보인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시계를 보고 기도가 조금 길면 눈을 떠버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손이 먼저 나가는 이 기이한 조급함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병적으로 만들어 갈까?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조급하며...’
우리는 흠을 멀리 떠나면서 잃은 것이 많은 것 같다. 어떤 목장에 가보면 채소가 가꾸는 이야기로 풍성하다. 실제 그들이 모일 때의 먹거리들은 장난이 아니게 풍성하고 많았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매주고 기다리고 기다려 얻은 채소를 뜯어서 밥상에 올려 그 채소가 입에 들어 갈 때의 기쁨과 감동... 그야말로 생명의 약동인 그 감동을 그들은 일찍이 알았다. 그래서 웬만한 병균에도 끄떡없는 그런 튼튼한 몸은 그렇게 때를 기다린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리라.
그렇다. 봄에는 꽃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며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린다. 자연은 전혀 조급함이 없이 언제나 때를 따라 자신의 모습을 온갖 아름다움으로 잘 가꿔나가는데 과연 어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잘사는 것일까? 답은 정말 쉬운데도 우리 많은 고민을 한다. ‘영혼이 잘되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그 순서 하나 잘 지키면 되는데 말이다. 그래서 원하던 원치 않던 오고가는 사계절처럼 우리 삶에도 그냥 찾아오는 일들 속에서 올라서야만 보이는 세계에선 좀 더 안간힘을 쓰고 내려오는 길목에선 널널하게 쉬어가면서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뜻을 살아내면 그게 가장 때를 따라 잘사는 우리네 삶이 아닐까.
절정하고 이기적이고 탐욕 가득하고 조급한 맘으로 계속 불평하고 엉망된 삶을 살건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아 강건한 삶을 살건지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선택의 기로에서 본다. 그렇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너무 익숙해진 생각과 계층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이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사람이 아닌 것들로 내 인생을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이라. 부끄러운 것은 내 가슴이 말라버린 것이요, 소유인 비본질적인 것들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기에 늘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왜 먹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으며 살라는 말일게다. 오늘 하루 방방 뛰며 살았는데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일 게다.
그렇다. 우리가 아이처럼 다시 살아나는 길은 주님이 얼마나 절실히 나를 사랑한다고 절규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과 한번만 마주치면 우리 베드로처럼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은 그 사랑에 빠질 텐데... 그래서 혼동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뒤엎어 버리고 깨내고 버리고 분류하고 나누고 채워넣고...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여 다시 새로운 나를 맞이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한 여름의 얼음냉수처럼 시원한 삶의 본성을 만나고 뜨거운 불의 열정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중심을 만나 못한 열등감으로 툭툭 뭉친 힘없이 사는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장비와 도구를 갖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 한해를 마감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changsam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특별예배: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주일, 유년: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특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안다루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s.org	앵커리지영원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영원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2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2:00 원년예배: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토요칼럼

알팍하다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알팍한 것은 비천하다. 알팍한 마음은 얼굴에 비취고 알팍한 지식은 문장에 비취고 알팍한 인격은 언행에 비취고 알팍한 인격은 언행에 비취고 알팍하면 본색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알팍한 것은 비천하다. 알팍한 마음은 얼굴에 비취고 알팍한 지식은 문장에 비취고 알팍한 인격은 언행에 비취고 알팍하면 본색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알팍한 것은 비천하다. 알팍한 마음은 얼굴에 비취고 알팍한 지식은 문장에 비취고 알팍한 인격은 언행에 비취고 알팍하면 본색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닳고 닳아 뻘뻘이처럼 되어버린 지금도 아담과 화와의 후손인 사람은 마귀의 밭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원인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닳고 닳아 뻘뻘이처럼 되어버린 지금도 아담과 화와의 후손인 사람은 마귀의 밭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원인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닳고 닳아 뻘뻘이처럼 되어버린 지금도 아담과 화와의 후손인 사람은 마귀의 밭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원인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동남부 애국연합기도 및 결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민국 좌경화 막아야 합니다” 미동남부 애국연합기도 및 결기대회, 27개 단체 참여

혼란스런 조국의 안정과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동포들의 애국연합 태극기집회가 '미동남부 애국연합 기도 및 결기대회'(대회장 김종권 목사) 주제로 지난 14일 오후 2시, 애틀랜타 돌루스에 소재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이흥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많은 동포들의 태극기 집회인 오늘 대회가 미주 각 지역에 불길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대회를 했다.

이날 박기철 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혁 회장(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역지탐색 원천 무효" 등의 구호제창과, 박정정 회장의 만세삼창이 있었으며, 김진훈 목사의 축도 후 모두 앞으로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사)복음의전함, 5개 언어 전도지 10만부 지원 21일 거리전도에 뉴욕 한인교회 성도 150명 참여

(사)복음의전함이 주관하고 뉴저지 초대교회, 맨해튼 거리전도 단체 JCW, 맨해튼 한인교회 CMC, 퀸즈한인교회 등 총 4개 교회와 단체가 연합한 150여 명이 참가한 거리전도가 지난 21일 오후 1시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행해졌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전시된 복음광고 아래서 거리전도를 하고 있다.

뉴저지 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는 "평소 전도를 했을 때와는 달리 복음광고를 가리키며 그것과 연관된 전도지를 나눠주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뉴욕,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장이 됐다. 하나님의 복음광고를 통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는다. 앞으로 2차 세계 복음광고 지역인 방콕에서도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신년기도회에서 김도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인이민자 통해 하나님 영광 높이길”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신년기도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유호 목사) 신년기도회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윌튼장로교회(담임 김도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도석 목사가 "1607년부터 미국의 역사는 시작된다.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이

민자가 왔다. 한인은 한인교회에, 독일인은 루터교회에, 영국인은 성공회에 나간다. 우리 한인들은 이제 이민 3세쯤 된다. 3세쯤 돼야 한인이 변할 것으로 본다. 이민은 출신국가의 연장"이라고 말하고 "이제 이민 2세, 3세들이 줄기차게 미국 곳곳으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민자들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조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자"고 말했다.



RCA청지기 세미나 후 참석자들이 헌신예배를 드렸다

2017 AKRCA 청지기 세미나

뉴욕에 있는 RCA 소속 한인 교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7

AKRCA 청지기 세미나가 지난 22일 저녁 4시30분부터 뉴욕신광교

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뉴욕회장 류승례 목사 기호 후 조대형 목사가 "내가 머무는 곳", 이재봉 목사가 "청지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선물추첨, 경배와 찬양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헌신예배는 정갑진 장로 사회로 기도 박희준 권사, 찬양 신광교회 찬양대, 말씀 류승례 목사("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 해", 빌2:6), 헌금기도 윤여운 장로, 헌금특송 한문섭 집사, 광고 임지윤 목사, 헌신통성기도 박준열 목사, 축도 김기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한국어 총 5개 국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배포하며 매주 주말마다 거리 전도에 참여를 했던 것. 그 과정 가운데 1-2개의 교회, 단체보다는 같이 연합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취지에 이번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뤄졌다.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연 제 3회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글로벌뉴욕한인여성목연 제 3회 어머니기도회

글로벌 뉴욕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관하는 제 3회 어머니기도회가 지난 18일 오전 10시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목사, 합심기도, 특주 손소혜 집사, 헌금기도 박드보라 목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도 오명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대속을 통한 축복의 권세"(마20:2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의 응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내안에 그

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전희수 목사(연합회장) 인도로 △성령의 임재와 조국과 민족, 미국을 위해/이진아 목사 △글로벌연합회와 글로벌뉴욕연합회 회장 및 임원 회원들의 가정, 자녀, 사역자와 어머니기도회를 위하여/장만자 목사가 기도했다. 2부 친교는 심화자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됐으며 1월 생일을 맞은 어머니들을 위해 축하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이진아 목사의 인도로 건강 체조를 하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간증시간을 가졌다. 2월 기도회는 15일(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비전싱어즈 남가주 순회공연이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비전싱어즈 남가주 순회공연

비전싱어즈 남가주 순회공연이 18일 오후 7시30분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열렸다. 비전싱어즈는 한국 월드비전 음악원(구 선행회합창단) 졸업생들로 구성됐으며 '성도의 신앙', 'Peace', 'Praise His Holy Name' 'Siyaha' 등 성가곡과 '넬라판타지아', 'Let It Shine' 등 합창곡, '경복궁 타령', '한강수 타령' 등 한국무용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고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고택원 목사) 목사고시가 5월 12-15일 총회장소의 알래스카 앵카라에서 치러진다.

뉴욕교협 종교개혁기 탐방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가 주최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기 탐방"이 10월 2일부터 10박11일간 진행된다.

제 12회 어린이 성경암송 페스티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국 목사) 사모분과(위원장 정금순 사모)가 주최하는 제 12회 어린이 성경암송 페스티벌이 3월 28일(주) 오후 6시 개최된다.

뉴욕한인목사회 1차 임실행위원회 및 목회자 세미나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삼태 목사) 1차 임실행위원회 및 신년기도회, 목회자 세미나가 2월 2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개최된다.

2017 제 25기 분노조절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경숙 박사)가 주최하는 2017 제 25기 분노조절 세미나가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시-정오, 오후 8시-10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좋은교회 이진

플러싱에 있는 뉴욕좋은교회(담임 정진우 목사)가 교회당을 이전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2017년!

뉴저지교협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저지교협(회장 김중국 목사)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22일 오후 5시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중국牧사는 마치 창세기 1장과 같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바뀌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회복이요,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산다면 우리가 살고, 가정

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회복된다. 지쳐있는 영혼들과 이민생활에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함을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들로 다시 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감사예배는 부회장 윤명호 목사 인도로 경배와찬양 목사님, 기



뉴저지교협 2017 신년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이 회장 김중국 목사.

도 김진수 장로, 성경봉독 원도연 목사,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말씀 한재홍 목사(뉴욕교협 중경회장), 특별기도(미국과 조국을 위해/이성찬 목사, 교계와 교회를 위해/송호민 목사), 봉헌송 뉴저지목사합창단, 헌금기도 강영만 장로, 광고장동신 목사, 축도 이의철 목사(직전 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요14:20-21)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마리로 일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2017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BEST)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B(bible), E(ethics), S(spirit), T(tradition)을 설명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뉴스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했다.

△1월 학가다 세미나 △3월 비바민 세미나와 어린이 성경암송 페스티벌 △4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와 종교개혁 500주년 헌정담사, △5월 어린이 찬양제 △6월 23-25일 호산나대회(강사 권준 목사) △7월 뉴저지 찬양제 △9월 뉴저지 대안찬양제와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총동문의 밤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선교 구제 적극 참여,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 뉴욕장로연합회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23일 오후 7시 하크네시아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렸다.

제 7회기 회장 손성태 장로는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회원들의 신앙 성숙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친목과 선교와 구제에 적극 참여해 교계의 화평과 부흥에 이바지하겠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하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모든 회원의 건강과 사업과 섬기는 교회에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대표기도 박용기 장로, 성경봉독 남후남 장로,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특별기도 임형빈 장로, 봉헌기도 정권식 장로, 축도 전광성 목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부회장은) "새해 이런 복을 주옵소서"(사6:1-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 충만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기쁨의 새해, 어지러운 삶 속에서 무너져 가는 많은 것들이 재건되는 축복의 새해, 주님의 안식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안정된 새해, 나보

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하는 삶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총만함을 누리며 새해, 모든 일들이 경사가 돼 겹경사가 가득한 행복한 새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건강한 새해,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로연합회가 뉴욕교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축원했다.

2부 신년하례식은 이계훈 부회장 사회로 우화선 장로의 개회기도, 신년사 손성태 장로, 축사 김삼태 뉴욕목사회 회장, 윤세웅 KCBN 사장, 격려사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후원금 전달(KCS 한인봉사센터, 뉴욕나눔의집, 주님 의식탁교회, 오른손구제센터, 사랑의집), 만찬기도 김명신 장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뉴욕장로연합회는 △9월 10일 퀴즈장로교회에서 열리는 5회 다민족선교대회와 5차례 준비기도회, △10차례 정기조찬기도회, △3차례 임실행위원회 회의, △뉴욕 지역 장로인명부 발행, △세미나 및 수련회, △노방전도 △신앙 유적지 탐방과 가를 친교여행 등 사업을 발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최선 다해 주를 향해 달려가 승리하라" 제 27회기 동부개혁장신 제 11회 총동문의 밤

제 27회기 동부개혁장신교회신학교 제 11회 총동문의 밤이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저녁 7시 퀴즈장로교회 지하 친교실에서 열렸다.

총동문화장 정기태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은 동부개혁장신교회신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믿음으로 귀한 학우, 봉헌기도를 올려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47명의 졸업생들과 70여 동문 시무교회들이 말씀중심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과 열심히 달려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정기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태 목사, 성경봉독 이경남 전도사, 찬양 동부개혁장신 찬양대, 설교 장영춘 목사, 헌금특송 이재환 학우, 봉헌기도 김지희 목사, 축사 순환권 목사, 신학교 소개 이종원 총무처장, 특주 신동기 학우, 광고 최화숙 전도사, 축도 노기송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학장 장영춘 목사는 "승리의 비

결"(고전9:24-2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은 경기장이다. 크리스천들은 내세의 상을 바라고 경기장에 나간 경주자들"이라며 "본문에서 바울은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최선을 다하라 둘째, 우리의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달려가라 셋째, 절제의 삶으로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역설했다.

이날 동문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다고 발표했다. 동문 선교사는 동경 강민식(13회), 니카라과 김인선(14회), 필라 채왕규(13회) 등 3명이다.

노기송 목사는 축도에 앞서 "자신은 침례교 목사로 졸업 후 2개 신학교에서 M.Div를 했는데 다른 두 미국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동부개혁신학교에서 가장 철저하게 신학을 배웠으며 자신의 신학적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2부 만찬은 이은은 목사의 식사기도 후 부회장 이종태 목사의 사회로 퀴즈대회를 하는 등 친교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2017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에벤에셀선교교회, 예사랑교회, 퀴즈장로교회, 퀴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CRC한인사역부 주최 말씀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미시건주 칼빈대학교 제프리 웨이마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살전: 성, 성화 그리고 재림” 주제 CRC 한인사역부 주최 말씀세미나

CRC 한인사역부 주최 말씀세미나가 또 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성, 성화 그리고 재림’이라는 주제로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됐다. 제프리 웨이마 박사(미시건주 칼빈대학교)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세미나 첫날 강좌에서 웨이마 박사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그리스 복음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소개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돕기 위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기도 했다.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던 바울을 찾아와서 문제를 보고한다. 데살로니가교회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서 성적인 문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마 박사는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구별됨의 확실한 설명이다. 특히 성적 문란함에 대해 구별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인 것은 불결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성은 불결한 것 아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물이다. 남자와 여자에게 성은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파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적인 것이 거룩하다고 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이 하나님의 형상 반영된 거룩한 것을 드러내라고 부탁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토요일 세미나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고인 된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 △휴거: 성경적인가 아니면 잘못된 개념인가? 라는 주제로 제프리 웨이마 박사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고 김바울 목사 장례예배

고 김바울 목사 장례예배가 21일 오전 10시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열렸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이 집례로 시작된 장례예배는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가 기도, 고승희 목사가 ‘의로운 삶’(히 1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상희 집사(토렌스조은교회)와 장동일 목사(뉴욕모자이크교회 담임)가 조기를 불렀다. 이어 김기수 장로(부경대 교수), 이상현 목사(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가 영상으로 조사를,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한중호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 이종직 목사(샌프란시스코 샘물교회), 박광철 목사(조이헬로교회),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 허보통 선교사(독일), 심정필 교수(조지아주립대), 최해연 교수(조지아주립대), 안상욱 장로(토렌스조은교회)가 조사를 했다.

일 부산에서 출생, 부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0년 1월27일 결혼,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석사, 미시시피주립대학교에서 경영정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곧든케이프침례신학대학교(현 게이트웨이신학대)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1년 1월16일 토렌스조은교회를 개척 26년간 담임목사로 섬겼으며 지난 1월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유가족으로 아내 김선이, 장녀 로즈(사위 Ben Heieh), 손자 이튼, 폴린, 차녀 그레이스가 있다.

(박준호 기자)



고 김바울 목사 장례예배가 고승희 목사 집례로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열렸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서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이 강의하고 있다

강사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 APU한인동문회 주최 요한계시록 세미나

아주사피서대학교(APU)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 주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PU LA 리저널센터에서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이상명 박사는 “계시록 이해하려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명인 세베데의 아들 사도요한으로 알려져

(박준호 기자)

미래교회 리더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강좌 아주사피서픽대, 강사 계재광 한남대 교수

미래교회 리더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강좌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사피서픽대 LA 리저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좌는 계재광 박사(한남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미래교회 리더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리더십 진단과 셀프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계재광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과 비기독교인의 문제점은 가치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앙의 기독교가 단지 가족들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학습화 된다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 박사는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소명과 정체성 점검 필요 △소통과 섬김의 중요성 알기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라며 1927년 신문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은 “교회의 문제는 사상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없으며 세상사상에 요동을 치게 된다. 그리고 경제문제 곧 생활문제이며 이는 사회경제가 피폐해 교회는 재정필적으로 현상유지를 못한다는 것”이라는 기사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적 목회자로 부자의 귀만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닌 소명으로 목회하는 자가 되라 △자율적 독립적 신자들이 돼야 한다. 일상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살라 △소외된 한 마리의 잃은 양, 빈민 무산계급 노동자 등을 찾아나서는 교회가 되라. 그래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계 박사는 “1927년 기사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씁쓸해진다”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며 그것은 일상적으로는 섬김과 소통의 분이 되고 공동체적으로는 연약함까지 나눌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미래교회 리더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십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계재광 한남대교수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제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신년신앙강좌, 강사 김동길 교수

새생명오아시스교회(담임 김일형 목사) 신년 신앙강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로 20일과 21일 양일간 김동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둘째 날 저녁 강의에서 김동길 교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떼 후 1950년 한국전쟁부터 최근까지의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이 시행될 때 유신헌법에 대해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이 민주적 헌법이라 말할 수 없었기에 반대를 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가야했다. 감옥에 가보니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1년간 수감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강기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은 말할 듯 말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청년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하얼빈

에 가서 이토하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나라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현 시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첫 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주변의 부추김으로 마음이 변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을 통해 정직한 것을 사교했으면 몰라나겠다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신 중 흥취인간 사상이 있다. 이는 세계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널리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지난 1955년 당시 미국에 있는 한인인 1천명이 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의 정치판에도 한인 2세와 3세가 배출되고 있다. 한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난국을 타개할 힘이 있다. 지금은 한국이 한심한 것 같지만 안도의 한숨을 몰아 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사랑의빛선교교회 선교부흥집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선교부흥집회를 ‘선교, 그 부르심에 삶을 갖다’라는 주제로 27일(금)과 28일(토) 양일간 개최한다. 강사는 한철호 선교사(미션퍼스펙티브 강사, 전 선교한국 상임총무)이며 일정은 27일(금) 저녁 7시45분 본당, 28일(토) 오후 2-6시 은혜채플. ▲문의: (626)744-9191

주님의영광교회 성막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성막세미나가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호프센터 2층에서 열린다. 강사는 신승훈 담임목사이며 참가비는 10달러. ▲문의: (213)749-4500



한인가정상담소와 미주장신대학교가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사진은 교육과정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가정폭력 전문가과정 23명 이수 미주장신대-한인가정상담소 협력 겨울특강 개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기독교 사역자 23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미주장신대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일 동안 이어진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정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루졌다.

수강생들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놓고 역사·심리·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분야 교육과정을 겨울학기 특강으로 개설했는데 수강 인원이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양하게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한인 교계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 그리고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새생명오아시스교회에서 열린 신앙강좌에서 김동길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북동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찬힐링센터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중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눈발 흠날리는... “국가위한 기도 계속”

국가기도연합, 21일 서울역 광장서 13차 미스바구국 연합기도회

국가기도연합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13차 미스바구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간구했다. 눈발이 흠날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계속됐다.

국가기도연합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13차 미스바구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간구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른 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뤄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어 단단한 안희환 서울 예수비전교회 목사는 창세기 32장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미움과 증오, 분노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다.

안 목사는 “다윗은 전쟁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

님만 바라봤다”면서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시대가, 문화가, 역사가 어떻게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자”고 말했다.

그는 “형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은 4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온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면서 “그 기도로 20년간 바뀌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위기에 있다면서 화해의 영이 임하도록 간구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적개심, 미움, 분노, 공격성이 자리잡고 있는데 인터넷 공간만 보더라도 끔찍한 말들이 넘쳐난다”면서 “어둠의 세력은 이걸 붙잡고 사람들의 마

음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요.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서 “분노와 미움, 증오로 가득찬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영, 화해와 평화, 성령의 영이 임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했다.

안 목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바로 서도록, 어둠의 역사가 떠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국민들이 되도록 간구하자”고 말했다.

21일 눈발이 흠날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국가기도연합 소속 기도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회개와 구원, 9명의 헌법재판관들과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

해 기도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국민극복, 대한민국이 선진한국·선교한국·통일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간구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김재동 하늘교회 목사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기업도, 직장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같다.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국가라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짓과 선동이 아닌 주님의 보혈이 이 나라를 덮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기도회는 “조국이어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구호로 마무리됐다.

이영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도자들은 한결같이 조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도연합은 국경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노아씨,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탈락

“피선거권 없다”... 한기총선관위 논란 끝 결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자연 목사)는 19일 제22대 대표회장 임 후보한 김노아(개명 전 이름 김풍일)씨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며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했다.

선관위위원장 김자연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기총 사무실에서 선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 목사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은퇴목사인 김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에서 후보의 자격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목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에 은퇴했기 때문에 대표회장에게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김씨가 후보 등록을 위해 납입한 한기총 발전기금 등 1억 50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김씨는 16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했으나 200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 이단으로 보고된 전력이 있어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만큼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이 목사가 차기 대표회장으로 당선되면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환골탈태하며 하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 교육과 의료, 복지 분야에서 지대한 기여를 했다”면서 “종교개혁500주년을 계기로 섬김과 나눔, 희생이라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것”이라며

“오는 3월까지 한기총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한기총을 떠났던 교단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출범한 한교총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교가 있는 23개 교단 중 15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가입하기로 했다”며 “한교총은 법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협의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체가 인양되고 미수습자 9명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세월호 문제는 종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누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리더로서 국민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5000억·31개국 진출...신천지, 무섭게 컸다

국민본보, 총회 녹음파일 단독 입수

국민일보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천기(新天地) 34년 총회’ 음성녹음 파일을 18일 단독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신천지는 북한의 ‘주체 106년’처럼 1984년 설립 때부터 자체 연호를 사용한다. 입수한 파일에 따르면 신천지는 현금과 부동산 등 5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장 교회·센터 확대에 포교전략을 집중하고 있었다.

국내 1100여개 교육장소 운영	신도 수는 2015년 16만1691명에서 지난해 17만2775명으로 1만1084명(6.9%) 증가했다. 신천지 총회 수입(예산)은 259억5283만원, 12개 지파 신도들이 낸 헌금은 2493억8593만원이었다. 보유 부동산의 총액은 2016억8800만원이었다.
신천지는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총회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국내 55개 지교회와 266개 선교센터, 801개의 기타부동산이 있다”면서 “해외는 31개국에 28개 교회, 91개 개척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본부 1년 예산이 12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천지 총회본부 예산은 2배가량 많았다. 신천지 신도들이 낸 헌금의 평균도 1인당 144만 3414원으로 예정통합(281만여명) 신도들이 낸 헌금(1조3180억원)의 1인당 평균(46만8972원)보다

3배 높았다.

이 같은 충성도는 이만희(87) 교주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기인한다. 이날 사회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이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도 보내심을 받은 참 목자”라고 칭송했다. 최명석 다대오지파장은 “은세계가 신천지 약속의 목자를 보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다”고 역시 주장을 폈다.

위장교회를 군소교단에 편입시켜

신천지 총회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1만8784명이 신천지 교육을 수료했다”면서 “정통교회에 14회에 걸쳐 379만명의 함의 편지 이메일을 발송하고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를 통해 이단상담 지지 활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교집회를 109회 개최했으며, 7817회 봉사활동에 6만8064명이 참여해 72개의 상패·표창을 수상했다”고 자랑했다.

신천지는 또 “올해 목표 신도 수는 지난해 대비 109% 많은 34만 7588명”이라면서 “11개국에 34개

교회를 세우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폐쇄 운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2개 지파장들도 “지파별로 수천명씩 신천지 입교를 위한 복음방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정통교회에 전도 특공대를 파견해 전도사 장로 권사 등을 타깃 삼아 집중 포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해 봉사활동을 하고 지교회, 선교센터를 확대해 죽기 살기로 전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신천지대책전략연합 대표는 “신천지의 포교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무인기 신학교에 인력을 파송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교단세탁을 한 졸업생들이 목사안수 후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천지가 침투한 군소교단이 훗날 중대형교단에 흡수·통합되면 신천지 교회가 정통교회로 둔갑하게 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신천지의 포교전략을 철저히 분별할 때”라고 조언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각 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의견을 던져 변화를 이끌어 냈듯이 소규모 기독교 대학들이 연합을 통해 각 대학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인구절벽 시대에 새로운 대학의 기능과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기독교 대학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별세미나에선 미국 소규모 대학들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소규모 대학은 교원과 학생이 밀접히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오현숙 박사가 ‘소규모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 한세대 인재취업센터 맹주혁 팀장이 ‘경기 서남권 대학교 협의체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비 사례 발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철환 총회장은 축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의 개혁정신에 입각해 소규모 대학의 정체된 발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하자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권득철 루터대 총장대행은 “기독교 대학과 소규모 대학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참여키로

“지난 과정상 문제 다루지 말고...” 합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출범시킨 5개 교단장과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 고시영 한교연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 등은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갖고 연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교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단문제 선(先) 해결, 절차상의 문제를 앞세워 한교총 논의를 거부하면서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거리감을 뒀었다. ‘한교연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교연은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뒤늦게 연합논의에 뛰어든 것이다.

삼교총 출범 과정을 설명한 여성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라면서 “이런 배경에서 출범한 한교총은 협의체이며 법인을 갖고 있지 않다. 한기총과 한교연을 모두 아울러 같이 가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여 총회장은 “앞으로 하나 되는 데 걸림돌이 있다면 대화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는 큰 움직임 속에서 한교총을 출범하게 됐다”면서 “한교연은 제4의 단체가 아니며 절대 법인화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교총이라는 지분을 세워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기총, 한교연이 다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지난해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되도록 조일래 전 한교연 대표회장, 이종승 예장대신 총회장과 18차례 만나 논의했다”면서 “한교총 정관과 조직 형태는 한교연 쪽에서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한교총은 단체가 아니라 협의체”라면서 “하나 되라는 성경의 원리, 종교개혁의 원리에 따라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측 고시영 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 “하나 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하나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요셉 한교연 전 대표회장도 황인찬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이한교총 출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지난간 일을 놓고 감론을박 하면 감정만 상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논의하자. 이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도 “한교연 전 대표회장들이 연합과 관련된 논의의 전권을 나에게 위임했다”면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지속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총회장은 “지난간 일을 문제삼으면 감정만 상한다. 고 위원장의 제안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한교연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와 한기총,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가 만나 논의하자”고 말했다.

“대화 상대가 한교총인지 교단장회의인지 분명히 해달라”는 김요셉 전 대표회장의 요구에 대해 이영훈 총회장은 “연합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대화주체는) 한기총 한교연 교단장회의였다”고 말했다. 이성희 총회장도 “교단장회의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7인 위원회를 선임했다. 지금도 (한교총은) 교단장회의에서 선임해 준 7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도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은 교단 일정상 복잡했다.

“동성애교육 않겠다는 교육부 결정 환영”

학부모 단체 차학연 등 지지 성명 발표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않기로 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시민단체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때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학연 등은 “교육부는 21일 제3의 성, 성소수자, 동성애 등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문구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아들 딸, 나라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8면에서 계속)

우리가 회개나 중생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공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며 무덤에 묻힌 자들을 일으키시고, 수년 동안 썩어 냄새가 나는 자들까지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하신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는 일이 공예배 시간에 나타난다. 복음선포가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 공예배 시간에 주님은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사람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 병든 영혼들을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으로서 고치시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공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은 마귀를 몰라치시고,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의 모든 더러운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공예배 시간에 주님은 정사와 권세자들을 쫓아내시며 어둠의 힘들

학부모 단체들은 “남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 매독, 이질, 항문암, 간염 등 질병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학연 대표인 김지연 약사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다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윤리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결정을 내려줬다”면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적지향 등으로 미화돼 있는 동성 간 성행위의 실체도 균형감 있게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을 몰라치시고, 사단을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듯 떨어지게 하신다(렘6:12; 눅10:18). 공예배 시간에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 자연의 모든 과정을 뒤바꾸신다. 옛것이 지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물론 주님의 능력이 공예배 시간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시간보다 주님이 그런 일을 더 크게 일으키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공예배를 사적인 예배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9)공예배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 처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을 갖지 않으며 영광스럽고 찬란한 예배가 하나같이 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모여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장자들의 총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한다(히12:22, 23).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양을 노래한다. 그 모든 광경이 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younsklee@hotmail.com

기독교 대학, 왜 평가에 취약한가?

소규모 대학 역량 제고 방안 세미나

기독교 대학들이 신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사회 수요를 즉시 반영해야 하는 일반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에 둔감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3월 발표될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민 루터대 기획실장은 19일 서울 송파구 신동동 한국루터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대학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역량 제고 방안’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기독교 대학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신학과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설립이념에 집중하다보니 미래 수요와 사회요구 등을 반영한 융·복합적 교양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학습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비교과 과정 운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며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 의견을 위촉하거나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진입장벽이 높았고 교단의 교리만 중시하는 풍토도 인해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할 교직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재정문제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소규모 기독교 대학들이

교토소 선교칼럼 (13)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명희 목사

죽음의 고비에서 한 회개

저는 교토소 사역을 하면서 변화되어가는 재소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체험하며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즈라는 한 여자 재소자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2012년에 수감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리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꾸준히 믿을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4년, 리즈는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운전 중 오른쪽 타이어가 별안간 펑 터지면서 울퉁불퉁한 길에서 차가 몇 번 구르는 사고였습니다. 그때 리즈는 얼마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나가면서 많은 천사들이 공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 가족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이 다시 몸 안으로 돌아와 깨어나 보니 운몽에 호스가 끼워져 있었으며 사실상 죽은 상태였는데 의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리즈는 9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 날마다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죽음의 고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차가 구르는 그 짧은 시간에 나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며 저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가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고 본 것들을 간증하라고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저의 기도입니다.”

리즈는 아직도 여러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사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므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리즈의 간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육신의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리즈를 통해 저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리즈는 몸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축복의 길인지도 리즈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재소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과 돌보심을 느끼기에 저는 교토소 선교에 저를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에베소서 5:20).

yonghui.mcdonald@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2회 독후감 응모전 수상작(4)



목사, 달라스 영락교회 | **오경환**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일하심에 대해 배운 책

- “직설” 을 읽고

오늘날처럼 혼돈스러운 시대가 역사상 또 있었을까. 각기 시대마다 삶의 정황과 살아내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토록 권위가 상실되며 절대 진리에 대한 물음이 조롱받고 희화화되었던 시기가 존재했는지 모르겠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치를 정하고 진리를 결정하며 그것은 또한 언젠그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열려진 어떤 무엇으로 남겨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대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마치 창조 이전의 세계와 같은 세상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텍스트를 현실(콘텍스트)로 담는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 근본주의적 신학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무서운 도전을 하는 책이 나타났다. 박영선 목사와 김관성 목사의 대답을 책으로 엮어낸 “직설”이다.

박영선 목사는 이미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설교가이다. 그는 세계 문화에 대한 깊은 조예와 인식을 가지고 거침없이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부딪치게 한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며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책임을 가질 것을 도전한다. 그는 성경을 영웅의 이야기나 혹은 그저 기도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적 책임을 다했다는 지난 선배들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린다.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도전한다.

일흔이 넘는 노목사와 한창 목회를 시작하며 개척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SNS의 젊은 목사 김관성 목사가 만났다. 김관성 목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목회자다. 젊은 목회자로서 그의 질문에는 하나님에 역사하심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성도들의 삶이 왜 여전히 비루하며 고투하며 구질구질한지를 파고드는 열심이 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 이전에 한 성도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의 현실을 살아가며 감당해낼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주장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교해온 일흔이 넘는 목회자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의 열심 있는 인생은 여전히 남부하고 치사하며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없다고 항변하는 젊은 목회자의 대답은 이 지점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책의 배경이며 전제이다. 무엇보다 김관성 목사는 자신의 젊은 시절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항변 속에서, 그리고 그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박영선 목사의 설교와 신학에서 어느 정도 고민에 대한 질문과 실마리를 풀지 않았나 싶다. 그의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던 동시에 선배 목회자와 신학자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깊게 묻어나 있으며 박영선 목사의 대답은 끈기있게 잡는 듯이 들리지만 그의 대답 역시도 후배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는 역할을 독특하게 해주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대담자와 대담자가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부에는 삶의 질문이 담겨져 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적 책임을 감당할 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영선 목사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이 작고 협소한 신앙생활의 몇몇 요구들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회사에 다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은 직장 내에 신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한다. 그는 날카롭게 이 점을 그의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다. 기독교인의 신앙적 열심과 책임은 좋지만 그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의 몇몇 협소한 요구들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 십일조, 예배, 기도, 봉사 이러한 것들을 강조해왔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한국 교회 특유의 신앙적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이러한 신앙적 요구들은 어느 정도 정당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교회가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기독교가 불과 소수종교에 불과했던 1세기 로마시대의 상황과 기독교가 처음 조선에 정착했을 때 역시 1프로그가 되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과 수고는 대단했다. 동시에 신앙적 요구들은 모두 다 신앙적 행위로 연결되어 바른 믿음의 열매와 결과들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앎과 삶이 하나가 되는 연행 일치로 살았으며 신앙의 텍스트가 삶에 녹아내려져 콘텍스트를 담은 만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얼룩져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과 진심이 진실하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반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원론적 삶이 아니라 신앙과 일상이 통합된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저자의 지적을 뼈아프게 들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도전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그보다 커서 우리의 인생은 억울하지 않은 인생으로 이끌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넉넉함과 자신감, 그리고 여유로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신앙적 책임의 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리와 요구 속에서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을 지라도, 죽음 가운데 승리를 담아내는 역설의 신비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죽게 하며 다시 살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한다.

2부에서는 신앙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내용과 과정이 없는 회개를 해왔으며 또한 선동적 구호와 명분으로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온 것을 저자는 지적한다. 어렸을 적에 수련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 늘 강사들은 조명을 어둠처럼 하고 찬양 소리를 키우며 온갖 신앙적 유희와 수사학을 사용했다. 그 곳에서 눈물로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것 역시 사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후의 내 삶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어떠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의 회개이며 무엇을 위한 회개인지는 잘 알지 못했다.

높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도전은 많이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현실과 내가 이미 정하기도 전에 정해진 현실 속에서 나는 무기력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분과 구호는 난무했지만 오늘 하루 일상을 어떻게 견디며 감당할 지에 대한 도전은 없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나의 신앙적 열심과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것의 내용과 실제가 무엇인 지는 최근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구체적인 실존과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만 도대체 큰 사람이 뭔지, 큰일을 한다는 게 뭔지 잘 알지 못했다. 선동적인 구호와 명분들을 내 신앙의 자리에서 떼어놓고 나니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거북이의 등껍질이 벗겨져서 속 안의 물결물결한 그 어떤 것만이 남듯, 나의 신앙도 역시 그랬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장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앙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4) 설교 원고 - 열왕기상 2:1-9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교시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③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 및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⑧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Rev. Sunghoon Cho) / Email: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3) 고시부 회계: 조용철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shalom의 교육학(13)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학습자! 그들은 누구인가?

학습자 그들의 현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회의 교육기관이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교육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학교교육이 역으로 아이들에게 좌절감과 불만으로 점철되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믿을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은 성적과 진학 문제로 늘 스트레스와 힘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범죄자료국(National Crime Records Bureau) 기록에 의하면 2014년 한해에 미국에서 8,032명의 학생이 자살했는데 이중 30%가 학업성적에 실패한 이유에서 자살이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6.4명(2000년)에서 9.4명(2010년)으로 47% 급증하여 OECD국가 중 증가율이 2위라고 한다(2013년 9월 10일), 그 이유는 성적 및 진학문제(39.2%)와 가정불화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에 사는 한인 청소년들의 실상도 별 다르지 않다. 3년전 LA카운티 내 인구 대비 자살률을 조사하였더니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 상실, 성적부진, 학교생활의 위기, 가정내 문제(가정폭력 등), 신체적 질환, 만성통증, 심리적 불안(집단 따돌림)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왕따의 경험을 가진 가해자, 피해자 모두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며 왕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6배 정도 높은 자살시도를 하고 있다(가톨릭보 2013년 5월 2일자 보도).

사실 한국 학생들의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작용은 심각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식의 교육시스템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미국의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85-2007년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스탠퍼드 등 14개 명문대에 입학한 한인학생들의 중퇴율이 44%로, 다른 문화권보다 월등히 높았다(미국학생 34%, 중국학생 25%, 인도학생 22%, 유대인 13%, 김승기, 한인명문대생 연구).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부모들의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와는 상관없는 전공 강요, 시험성적

위주의 학습전략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이다.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키워야 하는데 성공한 자녀로만 키워려고 하는 교육관이 빚어낸 결과이다.

성경에서 본 아이들의 가치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다. 우선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이다. 시편기자는 자식들은 여호와와의 기쁨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삼급이라고 이야기한다(시127:3).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혼한 부모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권장하셨고(창9:7, 신6:3, 눅1:24-25), 히브리 부모들은 자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되었고, 신체적 크기가 작은 성인의 축소물로 간주되어왔다. 사람의 성향을 보다 사악한 입장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체벌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훈육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견해가 서서히 발표되기 시작했다.

1592년 모라비아에서 태어난 코메니우스는 어린이들의 자연성 개발에 적합한 인간적, 실물중심의 감각교육을 강조하였고 교육은 인간본성의 자연적 순서에 따라 가능한 한 일찍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동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며 지상의 보물이라고 여기고 유아의 개인 차이를 존중하되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아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세기 1:27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2:7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신 존재인데 여기에는 아이들도 해당된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를 매일 호흡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일 아이들이 생기를 호흡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아이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있음을 교사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창조된 목적, 즉 고린도전서 10:31에 나타난 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창조되었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각자의 은사(고전7:7)와 달란트를 부지런히 개발하여야 한다.

국제기독교학교연합회(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는 크리스천 교사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믿어야 하며(창1:26),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신 존재(시139:14)이며, 그러나 죄인이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며(롬3:23), 하나님께서 장래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렘29:11)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가치로운 자(마19:14)로 부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둘째, 아이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맞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Graham(2003)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여섯 가지 특징으로 설명한다. 즉 목적 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이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아이들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통일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아리라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나님 형상이라 함은 이성적인 존재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인간은(아이들을 포함해서) 본래 죄인의 본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다(고후5:17, 갈3:20).

그러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교육하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후로도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보통 생후 2-5세에 결정적으로 발달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은 출생부터 5년에 걸쳐서 발달되는 인지적 발달이 향후 장기적인 학업성적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아이들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통일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아리라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하나님 형상이라 함은 이성적인 존재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물론 인간은(아이들을 포함해서) 본래 죄인의 본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이다(고후5:17, 갈3:20).

그러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교육하기를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유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후로도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보통 생후 2-5세에 결정적으로 발달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은 출생부터 5년에 걸쳐서 발달되는 인지적 발달이 향후 장기적인 학업성적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아이들을 성경의 가치대로 교육시켜야 할 존재들

지금까지의 교육학자들의 이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은 하나님 선물, 순종 가르치며 사랑과 훈계로 키워야
조기교육 중요성 강조...각각 은사, 달란트 개발하도록 교육



라고 믿었다(민5:28; 신28:4; 애가4:2). 둘째, 하나님은 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인품과 성격을 인정하셨고 우리에게 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셨다(마18:3, 19:14, 빌2:15; 삼상20:42, 스8:21).

셋째, 그러나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위하여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잠8:32, 19:27, 엡6:1, 골3:20), 아이를 사랑과 훈계로 키워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잠3:11-12, 13:24, 19:18, 23:13, 29:17, 엡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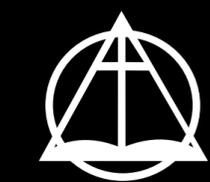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아동은 성인의 기준에 비추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인

계 6세 이전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구자적 견해는 1700년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유아교육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

루소는 어린이는 사악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자발성의 원리를 기초로 개성을 존중하고 흥미를 통하여 자기 학습을 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에밀을 통하여 연령에 따른 다섯 가지 교육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아동기(6-12세)에서는 감각교육, 신체의 모든 기관이 건강하게 훈련 되어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고아원과 빈민학교를 설립하였던 페스탈로찌는 특히 가정교육을 중요시하였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본은 어머니 사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Dates: May 12(Fri)-15(Mon), 2017
- Place: Anchorage, Alask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Written Test: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Written Assignment: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cpcn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718) 986-8442 E-mail: kfcpcny@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cpcny@gmail.com)
-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사모와 교인심방

사모가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일이 있다면 목사의 남편과 함께 심방을 하거나 사모가 구역장 또는 권사님들과 심방팀을 조직하여 심방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민 교회에서는 모두 바쁜 생활을 하느라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외로울 때가 많다. 그래서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필자가 은혜를 받기 전 목회 사역 초창기에는 심방의 중요성과 심방의 목적을 잘 몰랐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던 클리블랜드한인교회는 교인의 80%가 의사 가정이었다. 어쩌다가 심방을 가서 우리 집보다 더 잘 차려놓고 사는 집을 보면 너무나 부러워하였다. 심방을 갔다 온 후에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장식품을 사다 놓았다. 나의 심방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돌아켜 보게 된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심방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 후에는 심방할 가정을 위해

말씀을 주고 기도만 하고 온다. 주로 대심방 때에는 사업장 심방을 많이 하게 된다.

3.새교우 심방
교회에 새로 등록한 가정은 될 수 있으면 그 주 안에 스케줄을 만들어야 한다. 목사님과 함께 심방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환영하며 그 가정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며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4.대심방
1년에 한번 정도 온 성도들을 골고루 심방하여 주어진 시간에 많은 성도를 심방하게 되며 심방을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 좋다.

5.문제 있는 가정 심방
마음에 시련이 든 성도나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심방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치료하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전도폭발심방

범에서 뽑아 주소와 전화를 확인하고 약도를 찾아 놓는다.

2.구역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가정의 기도제목, 가정의 문제, 가정의 형편 등)

3.심방을 받는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심방하는 목사님과 사모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3. 심방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무기로 성도들의 영적 치료, 영적 소생,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심어준다.

- 1)영혼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2)영육간의 치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무기로 성도들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한다.
3)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들의 영혼을 새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진노의 불을 쌓는 유대인(롬2:1-5)찬412장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죄의 실상을 밝힌 후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믿는가? 첫째, 외식주의자입니다(1). 남을 판단하는 그 죄를 자신이 범하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외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한 자들입니다(2-4).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겸손한 응답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도 저버리는 사탄의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셋째, 회개치 않는 사람들입니다(5). 외식자는 회개하기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오심을 멸시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에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체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경계하며 즉시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롬2:6-8)찬543장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6). 어떻게 갚으십니까? 첫째, 영생으로 갚으십니다(7).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이 그것을 얻습니다. 여기에 선을 구함은 영광,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마6:33)이며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눅11:13). 둘째, 진노로 갚으십니다(8). 그

러나 교만해 땅을 만들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비진리와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곧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마저 거절되는 지옥형벌을 받습니다. 창세 이래로 준비된 영벌을 받는 염소의 부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마25:46). 이 둘 중 당신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수 당신은 어디에 속했는가?(롬2:9-12)찬344장

또 다시 바울은 선과 악의 실상을 말합니다. 첫째, 그 정의-하나님과 그의 복음만이 선이고 그것을 떠난 것은 악입니다(11). 여기 악과 선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둘째, 그 성격-악은 심령에 끈고와 환난을 가져오는 선행은 영광 존귀 그리고 영광을 가져오는 절대 성격을 가집니다. 앞서 말한 영생과 영벌, 빛과 어두움의 결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실상-헬라

인이나 유대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로 오직 예수 믿음의 길만이 구원인 것을 보여줍니다(12). 창세 이래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타락한 후에도 변함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러 영적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을 가장한 악의 활동이 많은 우리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목 세 가지 의(롬1:13-16)찬265장

본문은 세 가지 의를 보여줍니다. 첫째, 율법의 의(13)-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의 의란 행함으로 의에 이른 것을 목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표준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기에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양심의 의(14-15)-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의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심은 양심이 심판의 기준

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은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아담의 부패성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복음의 의(16)-그래서 나타내신 것이 복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죽음으로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를 따라 갑시다.

금 유대인의 외식(롬2:17-24)찬405장

유대인의 외식은 어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17). 율법을 의지하나 그것을 범했습니다(17). 율법을 알고 의지하나 그것을 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초인 하나님과 그의 의인신(마23:23)을 모든 일의 기준으로 정했으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하나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17-20). 율법의 핵심인 하나

님과 그의 진리를 자랑하고 진리의 본을 가르치지만 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모순에 떨어진 것입니다. 셋째, 경건을 이용해 외식의 삶을 살았습니다(21-24). 경건의 모양을 갖추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 의인신을 불의, 광포, 불신실로 바꾼 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은 주님이 화되었는 자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뿐 아니라 생활에 적용하려고 힘씁니다.

토 새 언약 백성(롬2:25-29)찬347장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대다수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첫째,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28). 이것은 외식주의 곧 인본주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이루려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외식주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29). 할례란 하나님백성의 몸에서 새긴

표식인데 성령세례로 성취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마음은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을 보일지라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29).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새 언약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2)



이희숙 사모

미리 기도로 준비하였다.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준비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한 심령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모로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심방 전도사님 혹은 권사님들과 열심히 심방을 하게 되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잠27:23).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준비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한 심령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심방의 종류

1)병원심방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는 빨리 심방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처럼 외로울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심방은 빠를수록 좋다. 오도 입원해 있는 성도는 적어도 한주에 한두 번은 심방을 하도록 한다.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따뜻한 심방은 평생 그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로 남는다.

전도폭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자와 2명의 훈련생이 한 팀이 되어서 심방을 한다. 그리고 추가 지원 심방도 전도폭발 순서에 따라서 한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체계적으로 심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심방이다.

7)전도를 위한 심방

불신자에게 복음 제시를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돕는다. 한번은 불교 신자 가정에 심방을 갔다. 복음을 전한 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자매님이 두려워하는 옷장 안에 차려 놓은 불상, 목주, 부적, 실타래 등을 밖에 가지고 나가서 다 불에 태워버렸다.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질병에서도 치유를 받았다.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참석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 자매님은 지금 권사의 직분을 받고 구역장으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방의 축복된 귀한 열매를 주신다.

2. 심방을 위한 준비

1)심방 대상자의 교인 카드를 교인 옆

롭게 소생시켜 준다.

4)영적성장: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며 영적 성장을 도와준다.

5)성도들과의 관계: 심방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가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목회자와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준다.

4. 심방 가서 주의할 점

심방은 주일예배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심방을 가서 설교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가정의 형편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좋다. 일반통행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차나 마시고 음식이나 먹고 나오면 교인들은 허전해한다. 그러므로 쓸 데 없이 수다를 떨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도보다 주변 물건에 관심을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심방 가서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 심방을 갔을 때는 친절해 놓은 물품에 너무 매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hslee39@sbcglobal.net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문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교회, 베델한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오렐산선교회, 엘버린침례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계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주교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listing includes church name, address, phone, and website.

신앙이 직장생활에 안정감 준다

처치리더스닷컴, 팀 켈러 목사가 전하는 크리스천의 5대 직장사역원리 소개

2017년 새해를 맞아 많은 크리스천들이 결단을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독교인이 일하는 방법은 비기독교인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복음은 기독교인이 일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준다.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그 5가지 비결을 소개한다. 리디머교회의 팀 켈러 목사가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원리를 말해준다(Tim Keller's 5 Ways the Gospel Transforms Your Work)

1. 신앙은 당신의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준다.

믿음이 없이 업무에 매진하게 될 경우 우리는 탈진하거나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직업은 우리의 삶에 2가지 유형의 파괴력을 가지고 온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성공할 때다. 이 경우 우리의 머리가 점점 쪼인다. 한 영역에서 특출난 것일 뿐인데 마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가 된 것인 마냥 행동한다. 그리고 비슷한 성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깔본다. 두 번째 경우는

지난 세대에게 직업이란 필요악이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겐 직업은 조금 더 낭만적인 것이 됐다. 그들은 자신만의 재능을 사용해 세계를 구하는 것 같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신비스럽고 행복한 소명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직업을 쉽게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유형의 직업을 존귀하게 본다. 사람들의 이목과 동떨어져 보이는 직업도 그렇다.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유를 주실 때 실제로 우유가 공중에서 갑자기 튀어나

직의 간부들을 비난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도덕과 윤리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C. S. 루이스가 그의 책 "인간폐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거세시켜놓고 그들이 변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법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윤리와 도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쟁에 뛰어들지만 승리를 위해 잔인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부를 쌓지만, 타인에 대한 선

사실이다. 훌륭한 과일이라면 기내방송에 무작정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승객들이 편안하게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착륙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라면 인간 본성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해야 하고 이것은 성경 밖의 지식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까? 어떻게 정의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성경을 토대로 한 인류학이 없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직장 내 우상들이 속삭이는 거짓된 말들을 분별하고 자유로워지게 해준다.

일의 가치에 대한 바른 관점 제공, 직장 윤리기준 따르도록 일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갖고 업무관계에 희망 줘

우리가 실패할 경우다. 이 경우 우리의 삶과 영혼이 피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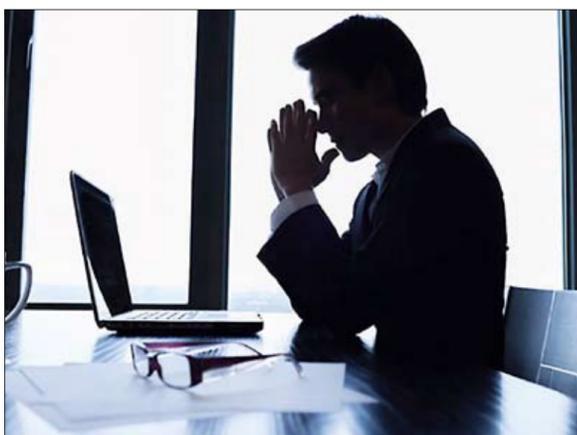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위협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는 뉴욕타임스의 작가 중 하나인 벤자민 뉴겐트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글 쓰는 일을 내 존재 자체로 여겼을 때 내 삶은 뒤죽박죽이었다. 내 일은 나를 타락하는 삶으로 내몰았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타락이라기보다, 예전의 칼빈주의다운 모습들이 있었다. 좋은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됐을 때, 내 글의 질적 수준이 내 일의 잣대이자 기준이 됐다. 그럴수록 나는 내 글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 글이 좋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은 내 일이 곧 내 존재의 이유, 내 정체성이 되는 후유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2. 신앙은 일의 가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게 해준다.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직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가치관은 직업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은 소꿉친을 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해주신다. 이와 같은 논리는 다른 모든 업종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하찮고 작은 일 같아 보여도 말이다.

3. 신앙은 직장에서의 윤리기준을 따를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꽤 흥미로운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 한편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그들이 어느 선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벌을 가한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들과 언론, 경제 등 각 조

김과 도움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하지만 요령을 피우면서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은 업무 내의 법도를 넘어서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

4. 신앙은 당신의 일에 대해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해준다.

복음이 없었다면 당신을 억압했을 업무가 신앙이 생긴 후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사회에서 종종 듣는 거짓말은 직장관과 믿음 생활은 별개의 동떨어진 영역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말은

5. 신앙은 당신이 강박해지거나 피폐해지는 업무관계에 희망을 준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의 일 너머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생동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정적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 또한 평생 그들이 꿈꾸는 걸작 한 작품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려온 도시를 설계하고 살아생전 눈으로 보는 일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의 도시가 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원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들을 우리 대신 모두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마 25:23).

세계한기독교언론협회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13면에서 계속)

박영선 목사는 이 지점을 이야기한다. 어떤 크고 거대한 무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의 내가 당면한 실존적 현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해내며 견뎌내며 이겨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먼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간을 살며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의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감당해 낼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3부에서 박영선 목사와 김관성 목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간다. 김관성 목사는 여전히 한국 교회는 신앙적 명분에 집착할 뿐 아니라 세속화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질문한다. 박영선 목사는 선배들의 발걸음 속에서 먼저 배우고 그 내용을 넘어설 것을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군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뜻과 의지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다.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비평 속에서 박영선 목사는 한결같이 앞으로 이것을 넘어설 것이며 하나님이 현실을 넘을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담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의 설교를 대부분 들었고 또한 그가 저술한 책은 거의 다 읽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며 또한 어떠한 풀리지 않는 실태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소리친다. 나는 그의 이러한 입장이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며 또한 이것 역시도 현실에 대한 도피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희망 역시 없는 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역할을 하시며 역사는 여전히 그의 손아래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 가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가 생각했다. 특별히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보다 못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보다 큰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쎄 분인지 항변한다. 동시에 현실을 넘어서서 그를 바라보며 그 가 허락해 주시는 도전들을 은혜로 감당해내며 전진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는 독한 말을 쏟아낸다. 설교가 얼마나 피상적이며 현실을 담는 그릇과 지혜가 없는 지, 그리고 목회자들의 분별력과 관용의 자세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지적한다. 그는 오순절 교과가 끼친 놀라운 전도의 영향력과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을 지적하며 그들을 받아들이 것을 요청한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다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으며 또한 그의 지혜는 깊고 놀라워서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것임을 역설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소위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파에서 자랐고 그 교단의 신학교를 나오고 훈련받았던 나에게는 뼈아픈 조언이다.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단과 교파에 대해 날카롭게 비평하며 잣대를 들이대었던 나의 흑역사가 존재한다. 내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과 욕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적 가치와 신학적 토대는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동시에 분별력과 관용이 있는 목회적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이 깊게 다가왔다.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의 교회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감당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내고 그가 일하시는 일하심을 보며 그의 은혜를 담은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큰 건물을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과정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나는 이 "직설"을 여러 번 정독하며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일하심에 대해 배웠다. 나 역시 현실 세계에 대해 불평하며 그의 일하심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 지 항변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문득 떠올랐다. 동시에 오늘 하루 이 비루하고 고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했다. 보다 치열하고 고민하고 살아온 박영선 목사의 잔잔한 도전과 외침은 오늘날 목회자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청출어람의 역사를 만들어 낼 책임과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다.

hwanyfive@naver.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